

F.G.I 조사 보고서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공헌(MER)

연구 기획 : 임성희

공동조사연구 : 양윤신
손정희
황지호

사)지역⁺교육연구소

Locality⁺ Education Institute Corp.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1
1. 조사 주제	3
2. 조사 목적	3
3. 조사 내용	3
4. 조사 설계	3
5. FGD Process	4
6. 면담자 Profile	5
7. 자문위원	5
제 2 장 조사 결과	7
1. 보고서 개요 및 요약	9
1.1 보고서 개요	9
1.2 보고서 요약	12
2. 작은학교형	18
2.1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 발전 방안 및 사업	18
2.2 유관 기관과의 관계망 구축 방안	21
2.3 교육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23
2.4 사례(진안 장승초등학교, 담양 무정초등학교)	25
3. 도농복합형	27
3.1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발전 모색	27
3.2 유관 기관과 관계망 구축 방안	30
3.3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 차원의 대안 마련	32
3.4 사례(아산시 거산 초등학교)	34
4. 농촌형	35
4.1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 발전 방안과 사업	35
4.2 지역내 교육 발전 사업 추진시 고충	38
4.3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 차원의 대안 마련	40

4.4 사례(진안 제일고등학교)	41
5. 기관 및 교육 전문가 그룹	42
5.1 지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42
5.2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3
5.3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	46
5.4 교육 진흥 체제의 기능과 역할	48
6. 학부모	50
6.1 교육 진흥을 위한 학부모 차원의 대안	50
7.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을 위한 제언	52
7.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의 함의	52
7.2 완주군 교육지원 사업의 현재적 의미와 새로운 접근	53
7.3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완주군의 주도적 역할	54
7.4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MER)을 위한 제언	55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	57
1. 교육 환경	59
2. 교육 공헌 방향	67
3. 실행 체제 분석	71
4. 교육적 공헌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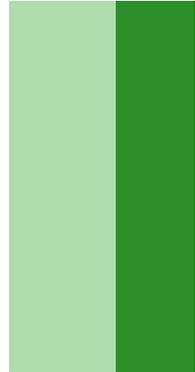
표 목 차

[표1] 완주군 교육환경	59
[표2]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제3의 기관 역할	60
[표3] 유형별 공통의 과제 및 해결 방안	61
[표4]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중장기적 교육 발전 계획	66
[표5]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 추진 체계	67
[표6] 범정부 방과후 돌봄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68
[표7] 완주군내 행정시스템 돌봄 실행체제 탐색	70
[표8] 희망복지지원단 주도의 실행체제	72
[표9] 드림스타트 주도의 실행체제	74
[표10]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제3기구 주도형(교육통합지원센터)	76
[표1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공헌 프로세스	77
[표12]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학교 역할	81
[표13] 실행체제별대안	82
[표14] 유형별 프로그램 대안	82

도 식 목 차

[도식1] FGI 조사 보고서에 의해 조사된 지역 교육 현안	62
[도식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제3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현안	63
[도식3] 유형별 역할 구도-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64
[도식4]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기구의 해결 가능한 과제	78
[도식5]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기구의 한계	79
[도식6]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기구의 한계 보완	79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주제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MER)¹⁾

2. 조사 목적

완주군내 교육주체간 소통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주체와 교육업무를 실행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주군 지역차원에서 교육진흥에 대한 접근 방법을 탐색하고 지원체제를 수립하여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단체(완주군)의 교육적 공헌(MER)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조사 내용

-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역 교육 발전 방안과 사업들
-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교육청 차원의 지원 대안
- 교육지원 체제의 기능과 역할

4. 조사 설계

1) 조사방법	정성조사(Qualitative Research)
2) 자료수집방법	FGD(Focus Group Discussion)
3) 표본추출방법	선정 질문지에 의한 적격대상자 리쿠르팅
4) 표본규모	5 Group(50명)
5) 조사대상	완주군청, 교육청, 학교, 학부모, 기관 및 교육전문가
6) 조사일시	2013년 1월 1일 ~ 2013년 5월 30일
7) 조사기관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

1) Municipal Education Responsibility(ME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에서 유래한 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이라는 의미로 조사보고서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를 상대로 작은 정부로서 더 큰 책임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 교육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5. FGD Process

Warming up Stage
1. 인사 및 감사 말씀
2. 소개 및 조사 목적 설명
3. 진행 방법 조사
4. 진행자 및 참석자 자기 소개

Main Stage
1. 교육사업 진행 실태
2. 교육기관 의견 수렴
3. 완주군의 교육지원 의견 수렴
4. 유관기관들과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완주군의 교육지원과 지역 인적자원 연계 방안
7. 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 사례
8.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 ·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Debriefing Stage
1. 추가 질문 확인
2. 감사 말씀

6. 면담자 Profile

6.1 작은학교형 - 운주, 경천, 동상, 비봉

운주초등학교	가천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경천초등학교
--------	--------	--------	--------	--------

6.2 도농복합형 - 삼례, 봉동

삼례여중학교	봉서초등학교	봉동초등학교	삼례초등학교	삼례중학교
--------	--------	--------	--------	-------

6.3 농촌형 - 고산, 용진, 학산, 소양, 구이, 상관, 남관

고산중학교	상관중학교	삼우초등학교	용진중학교
-------	-------	--------	-------

6.4 기관 및 교육 전문가 그룹

완주군청(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완주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완주군건강가정지원센터
완주군다문화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고산산촌유학센터
햇빛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완주군드림스타트
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주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공부방

6.5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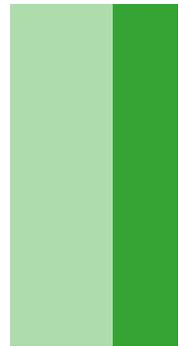
완주교육공동체	동산학교마을도서관	고산향교육공동체
고산향교육공동체(새싹돌봄)	완주학부모기자단	혁신학교학부모위원회

7. 자문 위원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아동학과 한영숙 겸임부교수
---------------------	----------------------------

제 2 장

조사 결과



1. 보고서 개요 및 요약

1.1 보고서 개요

교육은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이다. 중앙 정부와 지역사회 어디에서든지 100년 대계를 내다보아야 하는 무게감만큼이나 가볍게 접근하면 안된다. 이 때문에 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슈에 준하는 어른들의 고민과 노력이 더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커다란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에 대한 논의가 시기적절해 보인다.

완주군은 120억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완주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경비보조를 뛰어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청, 학교, 민간주도의 교육활동과 학부모들의 교육문제 인식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이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완주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조사개요를 제2장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요약과 그룹별 논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완주군이 도농복합지역임을 감안하여 2읍 11면을 3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작은학교형(운주, 경천, 동상, 비봉), 도농복합형(삼례, 봉동), 농촌형(고산, 용진, 화산, 소양, 구이, 상관, 남관)등이다.

이 보고서는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 정리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학부모, 교사, 기관 및 교육전문가 그룹(교육청과 완주군) 등이다. 이를 토대로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기관 및 교육전문가 그룹, 학부모로 나누어 5가지 형태로 그룹화시켜 정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 정리된 내용들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유형별 특성, 기대효과, 보완점, 지역사회 인식, 해결방안 등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학교 성공사례(교사주도, 학부모주도, 지역사회주도)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유형별 사례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전남 담양의 무정초등학교의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지원을 함으로써 촉발적 역할을 하여 학교를 살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진안 제일고등학교의 성장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2장 마지막에 5개 포커스 그룹의 요약 내용을 중심으로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제3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공헌의 현실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완주군 교육환경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청 등의 역할을 확인해 보고 특히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제3기구의 역할을 탐색했다. 유형별로 도출된 공통의 과제 및 해결점을 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 학교, 학부모의 역할을 도식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 돌봄 중심의 교육적 공헌을 단기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교육 공헌 방향 설정을 위해 범정부의 방과후 돌봄 통합추진 기조를 살펴보고, 방과후 돌봄 통합추진 기구의 문제점으로 실행체제가 부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돌봄 통합추진기구의 시군전달체계에서 드림스타트 중심의 추진 의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완주군내 행정시스템을 살펴보면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이 복지차원의 돌봄(아동+주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 정책방향을 완주군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관련 실행체제 분석에서 희망복지지원단 주도형의 대내외적 환경, 실행주체의 장·단점, 협력기관의 예산, 인력, 교육문제를 전체

로 교육주도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중심의 교육주도 가능성·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교육주도 가능성을 지원대상 확대, 인력보완, 교육문제 전문적 접근성 등을 전제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의 기구(교육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이 보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F.G.I보고서에서 도출된 위기(아동+가정)아동, 무기력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 문제는 시급한 사안으로 양대 기관의 연대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을 위해 지역사회 + 학교 + 학부모의 연동을 전제로 완주군의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을 정규교과 이외 방과후 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에 범정부 방과후 돌봄의 통합추진이라는 환경을 활용하여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의 한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제3의 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유형별 대안, 체제별 대안, 프로그램별 대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완주군의 2읍 11개 면 중에서 작은 학교형(운주, 경천, 동상, 비봉)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형(삼례, 봉동)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간 개별화 정도가 심각해서 제3의기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지역으로 보여진다. 농촌형(고산, 용진, 화산, 소양, 구이, 상관, 남관)은 이주민 주도의 교육활동이 활발하지만 원주민과의 갈등 구도가 나타난다. 이에 원주민의 활동을 유도하는 민간주도의 교육활동과 동아리 양성을 지원하면서,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보고서 요약

1.2.1 완주군내 지역간 교육에 대한 이해격차 존재

-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그리고 농촌형간 자체교육 활동과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작은학교형은 맞춤형 교육지원, 도농복합형은 지역의 맥락과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롤모델 개발, 농촌형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을 토대로 모델 개발 및 그 모델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2.2 지역 사회의 교육 문제의 공동해결에 대한 시기적 요구

- 완주군내 교육주체²⁾들은 교육청외에 다른 체계적인 교육관련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고, 교육의 대한 무게 중심이 교육청에 있다는 생각이 대체적이며, 완주의 교육 여건을 단체장의 열린 마인드, 많은 교육관련 예산지원, 교육 제반 시설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완주군 차원에서 현재 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 특히 교육진흥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탐색이 필요하며, 이는 완주의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교육 진흥 체제가 만들어질 때 교육청 주도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과 연계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소극적 지원을 넘어 군 차원의 질적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방과후와 돌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완주군만의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1.2.3 완주군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 순조로운 교육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기관(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 사업 방향의 인식 확산 활동 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활동은 학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역과 함께 해 나갈 것에 대한 뜻을 모으는 일이며, 모아진 뜻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완주군&완주교육지원청&전라북도교육청을 매개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이 필요하며 대체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완주군 방과후 사업과 관련하여 완주군 마을사업과 어떻게 연계가능한지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과정에 강사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역과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교육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조직(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를 연계·조정할 컨트럴타워)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 재정립이 실질적인 역할이 절실하며 이는 전라북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지속적 교류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 교육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인력(전문인력) 배치 및 예산 즉 인적자원 및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2.4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 완주군청과 완주교육지원청&전라북도교육청간 연계가 미흡하여 기관간 업무 협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위한 조정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트워크 구축은 중복 프로그램의 개설을 줄일 수 있고, 정보공유를 통해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가 다양한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나 그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 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상위 주관 부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하부조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진행하다 중단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형식과 시스템만 반복하는 네트워크를 지양하고, 한계를 서로 인식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상적인 사업과 실질적인(정성적 결과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평등하고 수평적인 소통관계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 소통체계 구축(실무협의회), 예산편성의 상호 의견 교환, 교육예산의 적절한 사용에 함께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 시급한 사안은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관련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인개입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모델 창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업무경감으로 학교교육본질 회복에 주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2.5 교육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안 마련

- 군의 역할로 조정자와 집행자로서 역할이 언급되었다. 기관 간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고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되, 세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원사업에 관해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는 역할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지형특성상 넓은 지역에 학교가 분포하며, 이동거리가 넓어 교육과정에 이용될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육관련 업무 및 사업을 기획, 추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 조직은 기존 사업과 향후 요구되는 사업 등 여러 축의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교육진흥체제 구축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시스템과 행정기관간(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국) 혹은 과(계)를 설치하여 예산을 일원화하면, 인적, 물적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조례화를 통해 저해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직내 강제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공교육내 이루어지는 교육복지사업은 방과후돌봄(전원돌봄), 교육복지우선사업, 방과후사업 등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완주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상으로 완주군내 전체 학생대비 70%를 상회하는 학생이 방과후사업(프로그램지원)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완주군 입장에서는 군차원의 완주교육관련 공동의 지향 목표에 대한 지역사회내 내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향목표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주민(학부모) 인식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진로와 자존감 회복에 관해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라 현장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 담겨질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성과 지표 위주의 사업 수행 지양 요구)

- 지역사회에서 기 양성된 인적자원들의 효율적 배치와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사회 인적자원 기관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마을공동체(마을사업관계자), 도서관, 문화원,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확인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에 대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 대화를 뛰어넘어서 실사구시적인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관계자 사이 많았다. 이는 현재 간헐적인 대화 체제조차 미미한 상황을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교육 진흥체제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관계기관 사이의 인식 공감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도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실질적 소통을 위해 자주 만날 수 있는 서로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교육에 대한 공동의 고민과 인식 지역사회 합의점 도출을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약간의 강제성,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내 부서별 소통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2.6 교육진흥 체제의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외 교육전체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교육복지에서는 교육이 합의될 때는 교육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의 수행자로 학교교육 본질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다만, 별도의 기관이 교육청 주도인지 지방자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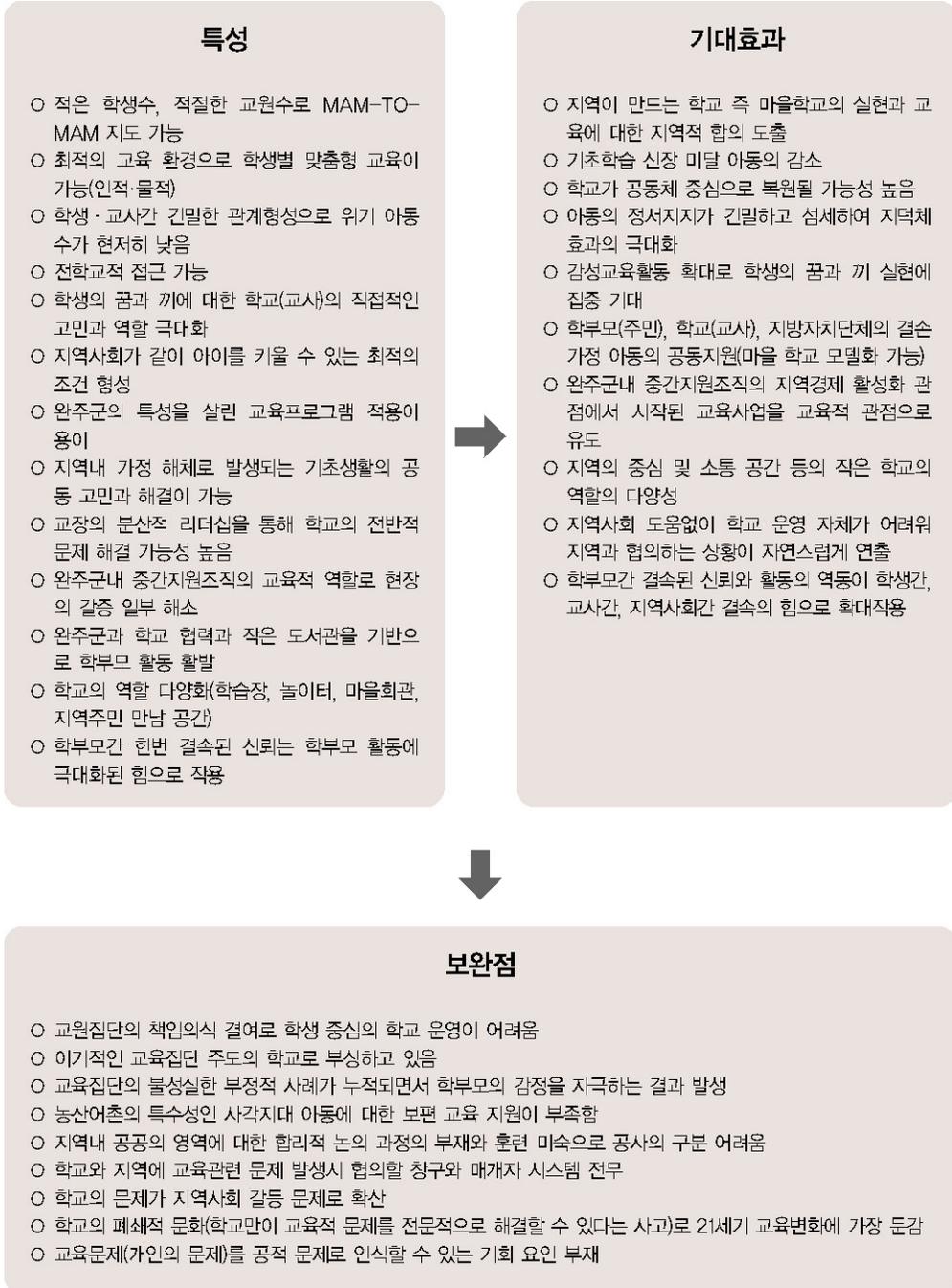
체 주도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제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교육진흥체제의 기능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교육전문연구 기관과 차별화 모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진흥체제의 소통체제 구축, 학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에 대한 모색),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협력, 지역사회 인적자원 역량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고, 교육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실무업무도 일정정도 요구되었다.
- 교육진흥 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
 - 1)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전담부서 설치
 - 2) 전담 부서를 통한 조직내 관련 사업기관간의 소통과 상호 추진사업 교류 활성화를 지향하여 교육통합 지원 및 연계 조정 역할
 - 3) 방과후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역할
 -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및 배치
 - 5) 시범사업 수행 및 공유
 - 6) 지역별 교육관련 계획 컨설팅
 - 7) 우수사례의 발굴 및 교육활동 공유 및 확대
 - 8) 지역간 격차 해소
 - 9) 위기아동 및 가정, 무기력증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성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솔루션 안전망 구축
 - 9)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 지역주민(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
 - 방과후 활동과 마을별 추진사업의 연계 방안 마련
 - 마을공동체와 병행하며,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발전 방안 마련

2) 포커스 그룹 5개 인터뷰 대상자를 말함.

2. 작은학교형 (운주, 경천, 동상, 비봉)

2.1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 발전 방안 및 사업



- 교육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지원하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중간역할자 부재
- 원주군내 중간지원조직의 다양한 교육지원활동 및 동아리 양성 과정에 이은 발전적 단계의 노력 미비
- 작은 학교형에 대한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고민이 없음
- 교육하면 교육청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별도로 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역할 확보 필요
- 학교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절실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성 있는 교육지원 필요
- 학교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관들에 대한 학교 불인정
- 지생적 학부모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절실
- 학교의 역할 커 지역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함
 - 지역사회 도움 없이 학교 운영이 어려움



지역사회의 인식

- 작은 학교는 무조건 좋다는 관행적 이해의 저변 확산
- 학내 자녀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 접근하는 것에 대한 높은 불안감
- 지역사회의 타인익스(눈치보기) 문화는 공동으로 발생된 문제에 공동 대응하도록 집단 문화가 조성되었다고 인식
- 교사 집단에 대한 이해가 극과 극을 형성(좋음과 나쁨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팽배)
- 학교가 건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학교를 옮겨주면 된다는 인식 형성
- 해체된 가정의 보호자는 교육에 대한 인식 선에 벽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식용해 누군가 지원하고 해주면 좋다는 식의 인식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교육관련 문제 발생시 협의할 창구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 큼
- 학교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이 불러 오는 폐해(지역사회 유지 문제와 지역민간의 갈등)에 불만
- 학부모 내적 역량강화는 학교 변화에 영향이 크지만 드러나지 않는 지원으로 지방자치 단체 지원 없다고 생각
- 교직원들은 학내에 벌어진 위기의 상황에 교직원을 보호하는 이기적 선택으로 아동 중심의 선택과 판단이 부족하다고 인식
- 지생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 활동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
-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지원이 없다고 인식
-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의 교육적 관점에서 역할접근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함이 타당하다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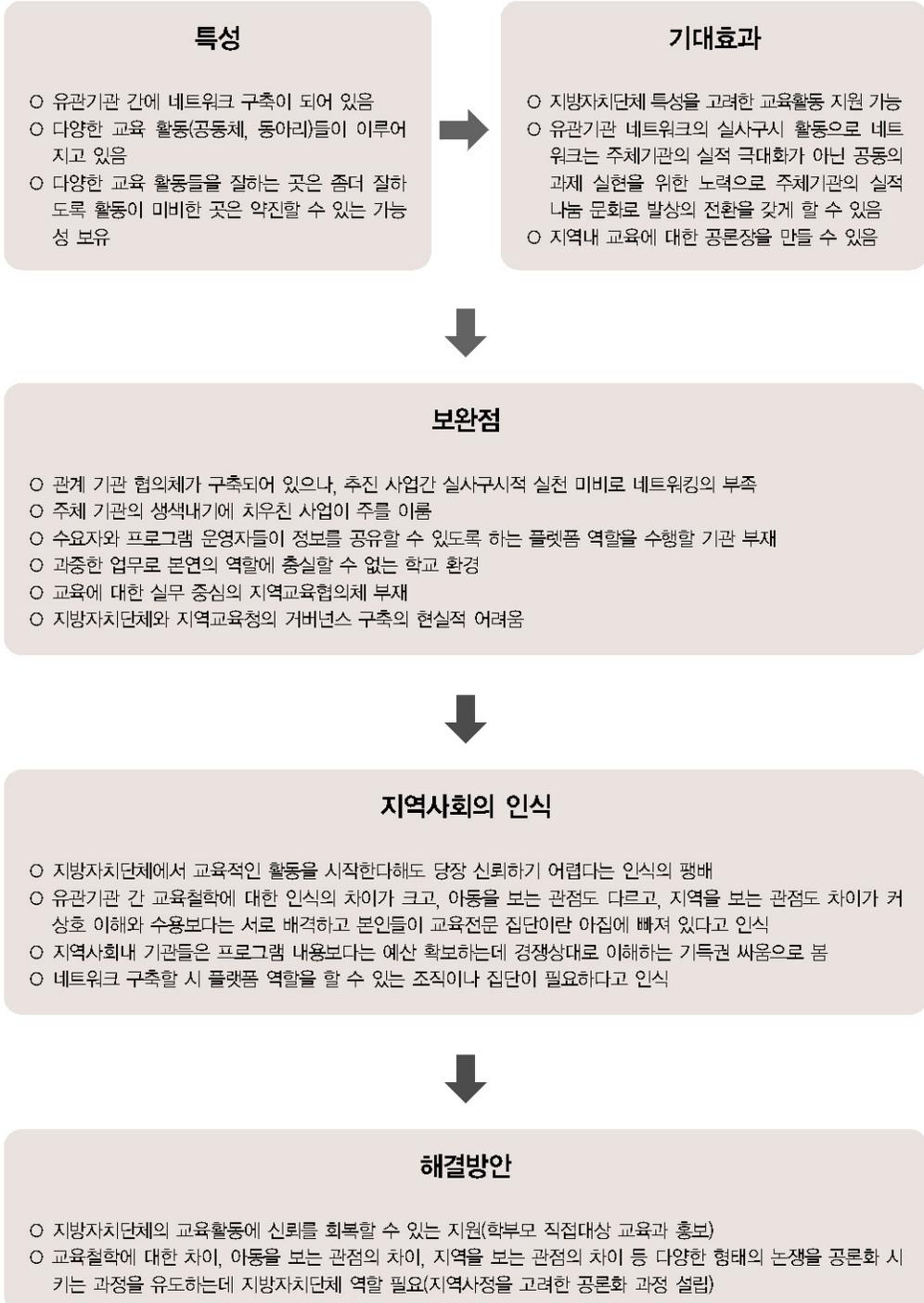


해결방안

- 학부모 주도의 적극적인 학교 개입과 감시
 - 학교 운영 활동, 교육복지사업 활동(즐북, 방과후, 교육복지우선사업)
 - 학교 밖 커뮤니티 공간(마을, 경로당,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확보로 교육사랑방 개설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학부모 주제 역량 강화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지원(맞춤형 컨설팅 지원)
 - 학부모 내부적으로 고민과 공감을 이루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지원

- 교육청 주도의 교사 주제 역량 강화 교육은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호의적 수용 기반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연대 협력 방안 공동사업 추진
- 완주군은 로컬푸드, 두레마을, 마을특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 및 마을)에서 프로그램적 접근과 완주군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 구조변화 과정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 농산어촌의 특수성인 저소득층, 결손가정 이의 사각지대 아동을 실질 지원하여 보편교육 실행
- 가정해체에 따른 안전망(희망복지원단,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실행 주제) 중심 행정 지원
- 학교장 리더십 유도 노력(교육청+지방자치단체) ↔ 학부모의 역할 강화 교육으로 유도 가능
- 완주군내 결손가정의 상황은 기관별로 차이가 크므로,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공유로 실질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 결손가정 아동에게 정서지지와 기초학습 병행이 필요하며 특히 문해교육과 수학과목 지원 필요
- 완주군이 현실적으로 공교육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결국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양질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국한할 수 있으며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사회 전문가가 만들어 가는 논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필요
- 지역사회내 방과후 활동을 담당하는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파편화된 활동을 교육과 복지라는 연결고리로 묶어 내는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역할과 지원

2.2 유관기관과의 관계망 구축 방안



- 정담회(세 사람이 술발처럼 벌려 앉아서 이야기 하는 모임)
- 죄담회(죄담을 하는 모임)
- 집담회(여럿이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 연석회의(둘이상의 회의 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토론회(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며 논의 하는 모임)
- 대토론회(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며 논의 하는 모임)
- 지역사회 기관에 예산을 배분하고 동아리 활동 등 사업을 지원할 때 내용과 과정을 컨설팅 하는데에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구축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실적은 참여 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주력

2.3 교육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특성

- 지방자치단체 장의 오픈 마인드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교육예산 지원 120억 (40억 방과후 예산)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방과후 사업 활용 가능
- 원주내 추진된 사업과 연계된 강사와 프로그램 다양

기대효과

-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많은 교육예산으로 공교육에 변화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시급성 필요
-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의 사업 추진으로 반향 기대



보완점

-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앞선 전담 조직(기획조정) 부재
- 전담조직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가 영입 우선
-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실적에 급급한 사업 지향 문제
- 사업비 소요 목적의 인위적 사업 추진과 기관간 결함 지향 문제
- 지방자치단체가 투여하는 교육 예산 집행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못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 추진한 사업이 전무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만남 이루어지지 않음
- 교육사업을 하는 관계자도 재충전과 전문가의 조언 받을 기회 없음
-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만남의 장 없음



지역사회의 인식

- 지방자치단체 장의 열린 마인드는 인정하나 교육사업에 열정만 넘치고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고 느끼고 있음
 - 방향 설정에 전문가 집단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교육전문가(전담조직)에 대해 교육을 잘 아는 다양한 분야의 능력있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었음
 - 전담 조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진 않으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함
- 지방자치단체 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성과에 무관할 수 없지만 성과내기에 급급한 사업을 대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교육관련 사업에서 지배적 생각으로 예산은 원주군이 주고, 권한은 원주교육지원청이 행사한다 생각함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사업으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스펙이 좋은 강사가 아니라 스펙이 부족해도 지역 상황에 맞는 강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필요(일자리 창출까지 연결)
- 학교에서 추진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감수성을 촉발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프로그램도 필요

- 감수성(칭의성)을 건드려 줄 수 있는교육적 접근과 통합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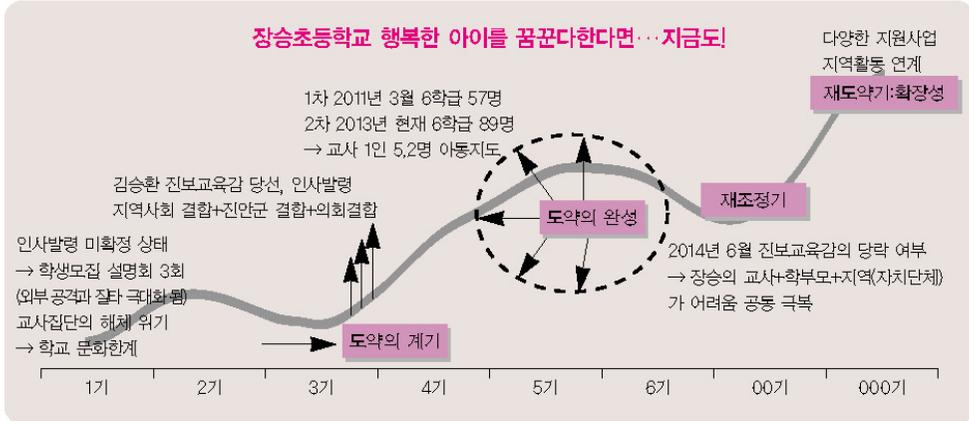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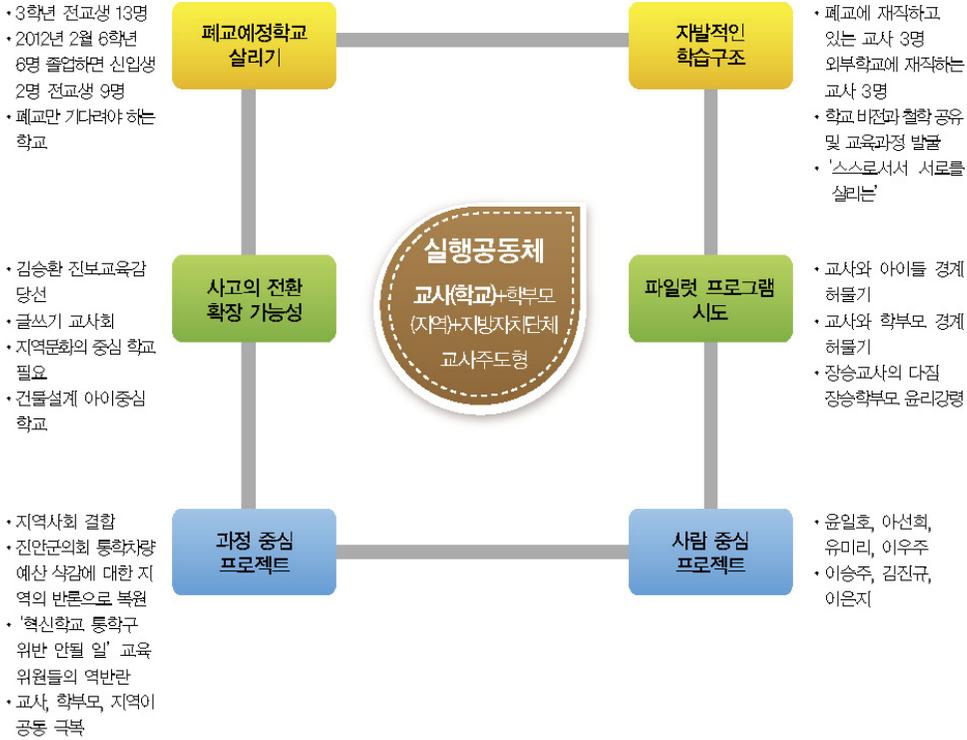


해결방안

- 원주군의 교육방향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설정
- 원주만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사업 추진
-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교육의지 홍보 및 교육
- 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예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행사하도록 방향 수정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추진 할 사업 선정(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교육청의 까다로운 강사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는 마을 강사 및 지도자 양성으로 일 자리 창출 효과 유도

2.4 작은학교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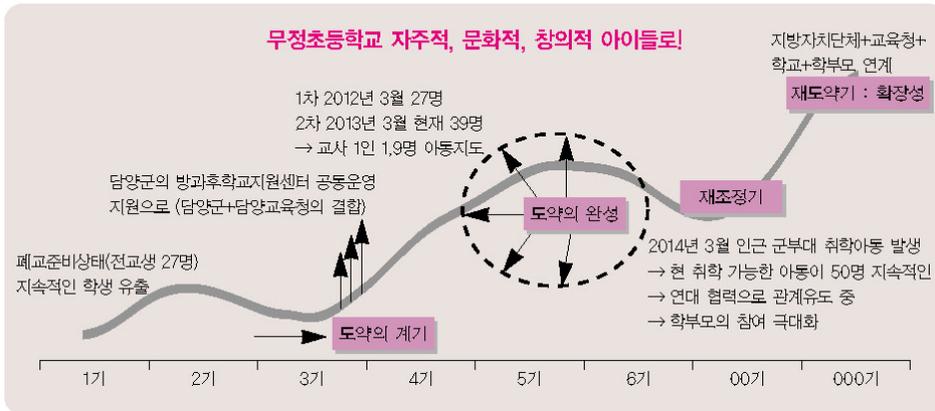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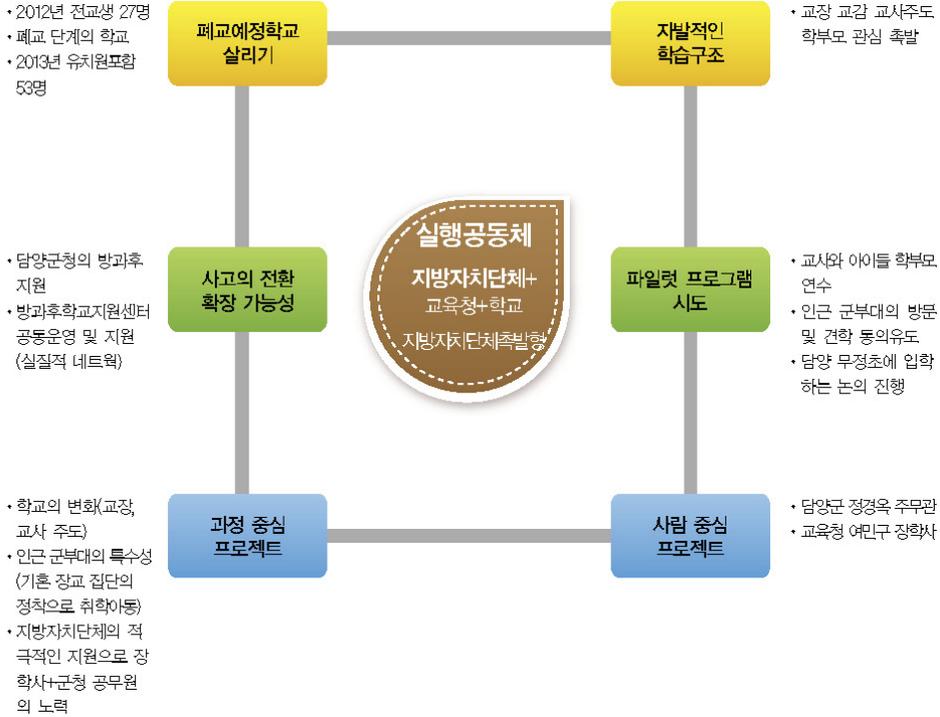
○ 진안 장승초등학교



장승초등학교의 '참 삶을 가꾸는' 멋진 학교 만들기...

- 남한산초등학교 교사와 만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슴으로 느끼고 왔다.
- 우리는 3명의 폐교 재직교사, 3명은 장수, 남원, 진안에 흩어져 있는 열정만 살아 있는 교사 집단
- 이오덕 선생님의 '사람은 왜 일을 해야 하나' 들음으로 부터 장승의 철학 세움
- 건축소위원회와 함께 짓는 장승초등학교/ '그래도 학교 갈 생각만 하면 빨리 나가고 싶다(2011. 3. 22 재학생시)

○ 전남 담양 무정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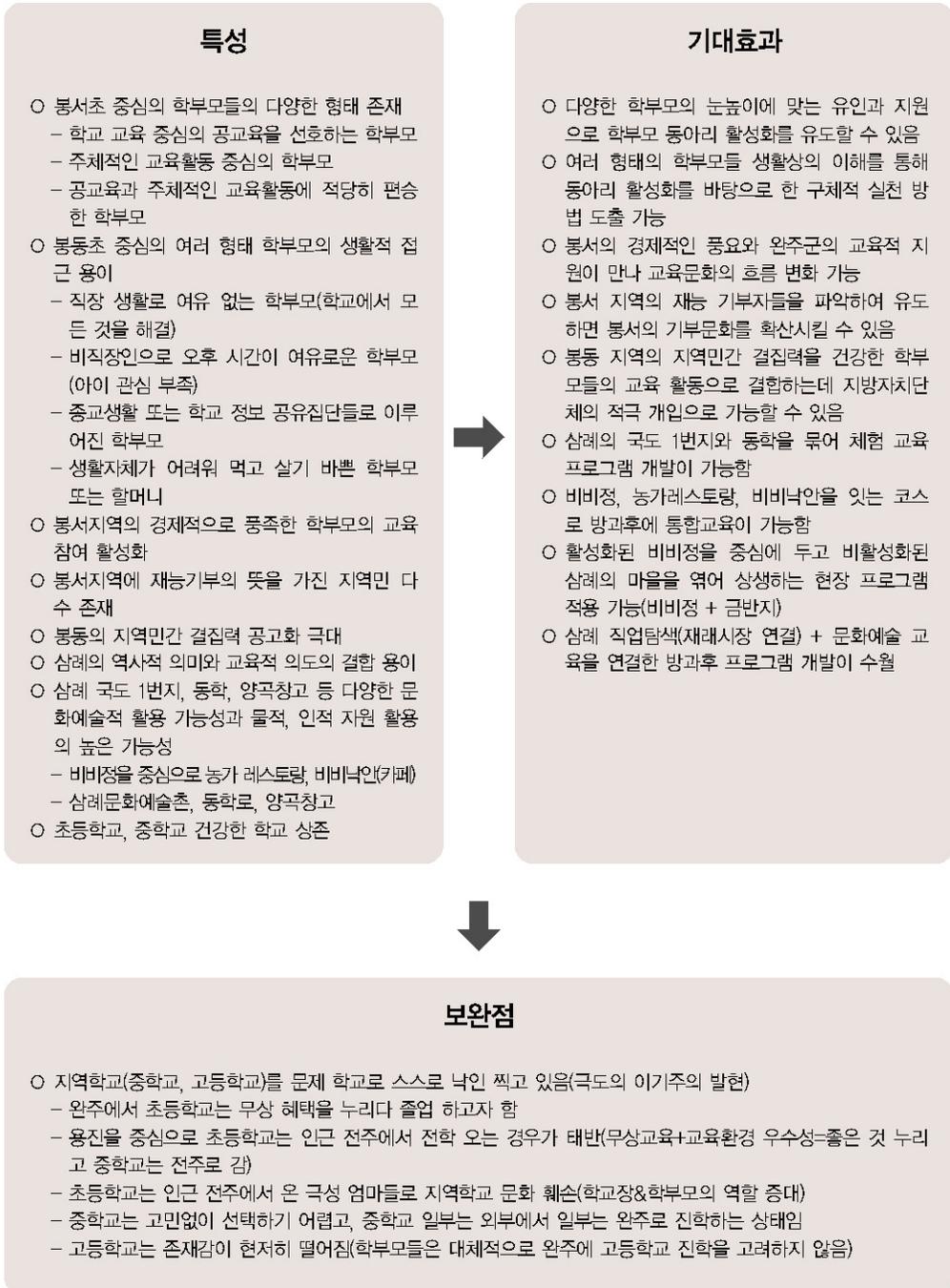


전남 담양 무정초등학교...

- 담양의 무정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다, 지금도 자유롭지 않다, 노력의 과정에 있다.
- 담양군청의 방과후를 통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 군청과 교육청의 노력이 학교를 바꾸고 있다, 인근 군부대의 취학 가능 연령 아동 50명이 향후 무정으로
- 교장, 교감과 교사의 변화로 시작되었던 학교가 학부모가 가세하면서 어떤 변화가 올지

3. 도농복합형 (봉동, 삼례)

3.1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발전 모색



- 봉서지역은 사교육 활성화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편승되어 도시의 일반적 형태를 보임
- 봉서지역은 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결집도가 낮음
- 돌봄사업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소수의 논의에서 끝나고 확장되지 못함
- 다문화 여성과 가족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다문화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현장 수요 대응 미비
- 방과후 활동에 대한 학교 및 학부모의 이해가 대단히 부족함
- 학교와 학부모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지지가 우선하고 학습은 차후 문제라 인식하나 사회적 구조적 문제 인식에서 끝남
- 봉서 지역의 재능기부를 공공의 영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없음
- 봉서 지역의 주체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학부모 유인책 없음
- 봉동 지역의 종교생활 또는 학교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학부모 유인책 없음
- 봉서 지역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학부모들이 원주군의 교육예산 지원 결과가 교육청의 지원 결과로 인식
- 봉동 지역의 지역민간 결속력을 건강한 학부모 결속력으로 유도할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성 있는 노력이 없음
- 삼례의 국도 1번지 + 동학로 + 재래시장 + 비비정 + 양곡창고를 묶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미세하게 진행됨
 - 비비정 마을이 주도하는 캠프 프로그램(초등, 중등)
 - 비비정 마을내 추진경과를 인터뷰하는 프로젝트 형태의 프로그램(초등)
 - 비비정 내 농가레스토랑 구성원의 생활상(음식, 운영, 민박 등)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초등)
- 삼례의 역사적 의미와 마을의 생활세계를 접목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 교육전문가 + 문화예술기획자 +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결합된 정성적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정성적 프로그램) 미비
 - 교육전문가 + 문화예술기획자 +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결합된 체험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이벤트 + 정성적 프로그램) 미비



지역사회의 인식

-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 형태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적으로 지원한다면 학교 중심 학부모, 주체적인 사고로 활동하는 학부모, 이도저도 아닌 중간 형태의 학부모로 인식
- 학부모 유형들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하게 지원하고 유인할 대상을 '주체적인 사고로 활동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학부모'로 보고 있음
- 주체적인 사고로 활동하는 학부모는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이 향후 지역에위기 아동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봉서와 봉동의 인식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당당함 & 익숙함과 미숙함에 차이라고 봄
- 도농복합지역은 농산어촌의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방과후에 대한 활동을 다양하게 인식
 - 교육청 요구에 부합하는 방과후 강사의 자격 조건을 지역에 맞게 완화(우선순위 교사자격증 및 해당 자격증 요구)
 - 강사 파견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지역에 거주자를 중심으로 소정의 훈련 과정을 통해 강사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지역사회농부(품목별), 마을의 산 증인들의 삶과 매개한 마을 사업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강사문제 단계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봄
- 봉서 지역 공단에 근무하는 아빠들을 중심으로 부모교육이 병행되면 아빠들의 인식 변화로 가정 교육에 크게 기여 될 거라 생각함
- 봉동 지역은 배달 강의 형태의 맞춤형 부모 교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면 동원성 참여가 줄어들 것으로 인식함
- 귀촌인은 배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개인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주민은 상대적으로 활

용하지 못한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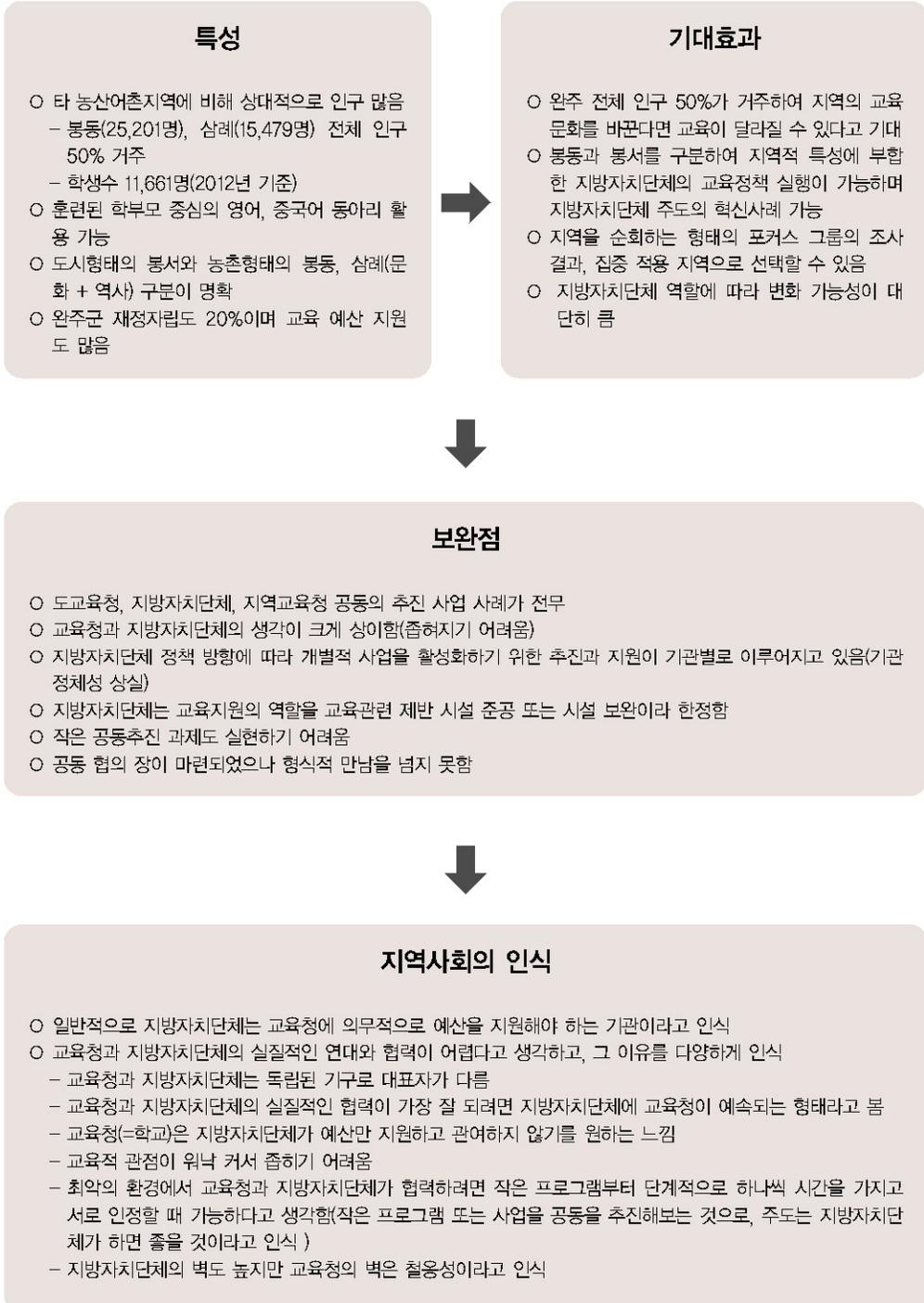
- 봉동 지역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
 -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 삶의 질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함
 - 하는 일이 바빠서 당장 배워도 활용도가 낮음
 - 배움이 기본적으로 낮아 선택의 폭이 적음
 -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삼례의 국도 1번지 + 동학로 + 재래시장 +비비정 + 양곡창고를 묶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인식
 - 봉동에서는 직장인은 아닌데 오후 생활이 여유로운 학부모(아이 관심 부족)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지 않음
 - 봉동의 중고생활 또는 학교 정보 공유집단들로 이루어진 학부모(봉서=주체적 활동의 어머니 집단)는 시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봉동, 봉서의 몰이해 학부모 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해 근원적으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음
 - 사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와 그렇지 않은 학부모 집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균형감각을 갖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봄



해결방안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에 낙인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개입과 학부모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찾아야 함
- 학부모의 필요에 의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건강한 학교 만드는 과정'으로 지지체 주도의 개입
 - 학부모가 결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향 설정
 - 동아리 선정 및 외부 교육 컨설팅 지원(학부모 자체역량 강화와 교사를 학교 밖으로 유인하기)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주체인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자각하고 출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일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 과정에서 주민(학부모)과 직접 만나는 것임을 인식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사 양성의 모든 과정 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성된 지역강사를 방과후 강사로 배치하는데 교육청과 합의 도출 유도(MOU체결)
- 봉서 공단내 기업들에게 아빠들의 부모교육 시간 할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청
- 삼례의 역사적 의미와 생활세계를 접목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논의 구조가 형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
 - 교육전문가 + 문화예술기획자 +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결합된 정성적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전문가 + 문화예술기획자 + 지역주민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결합된 체험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 봉동 지역의 부모교육 참여를 위해 배달 강의 형태의 맞춤형 부모 교육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여 해결
- 사교육에 열광하는 학부모와 반대 학부모간의 갈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해소

3.2 유관 기관과 관계망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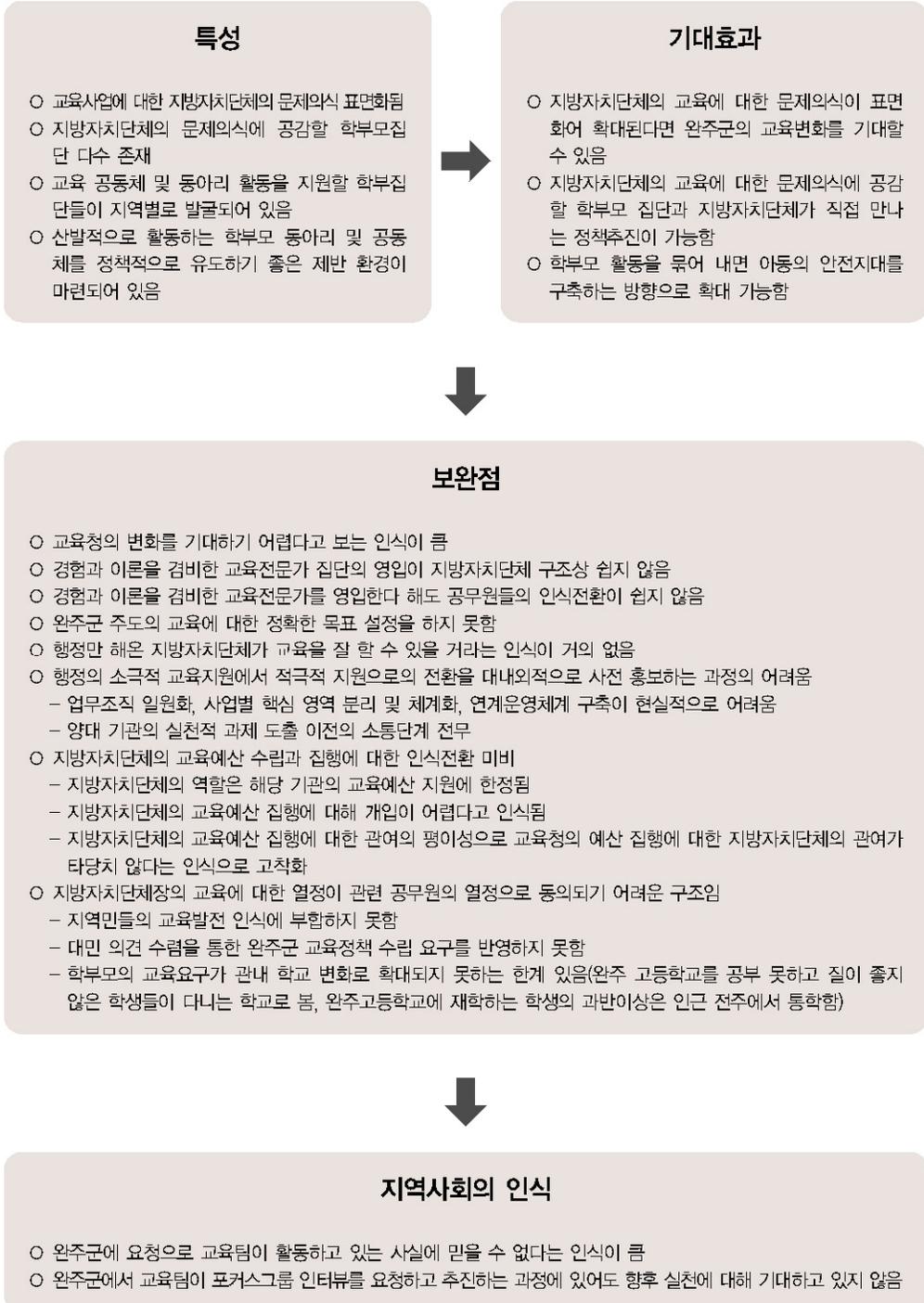
- 교직원들의 사고는 교직원 집단 외는 교육전문가로 인정할 수 없는 오랜 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
- 실무협의회 구성은 가능하나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권을 갖고 있으나, 제대로 된 예산 집행과 사용에 대해 점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으로 인식
 - 교육청은 교육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아집을 깨기 어려워 타 교육기관을 수용하지 못하는 교원집단 문화가 팽배해 있음
 - 주무 부처가 달라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소수의 인식 존재
- 유관기관(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함
- 유관기관(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간 실질적 관계망이 구축된다면 혁신적인 일로 받아들임



해결방안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공동의 추진 사업 프로젝트 추진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우 상이한 생각을 좁히기 위한 소통과정 개설
 - 양대 기관의 메마른 정서의 유연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을 접목하여 및 소통
 - 무엇으로 만나 일할지 서로 공감되는 일을 만들
 - 공감되는 사업을 만들어 공감대 형성 및 차후 다른 공동프로젝트 추진하면서 차이를 좁혀 나가
 - 좁혀진 차이로 다른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함
- 교육청의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실질적인 만남을 통해 연대 협력 분위기 조성 절실
- 교육청과 소통이 요원하다면 참여의지 학교를 중심으로 상향식 접근(bottom-up approach) 확산도 고려할 필요 있음

3.3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 차원의 대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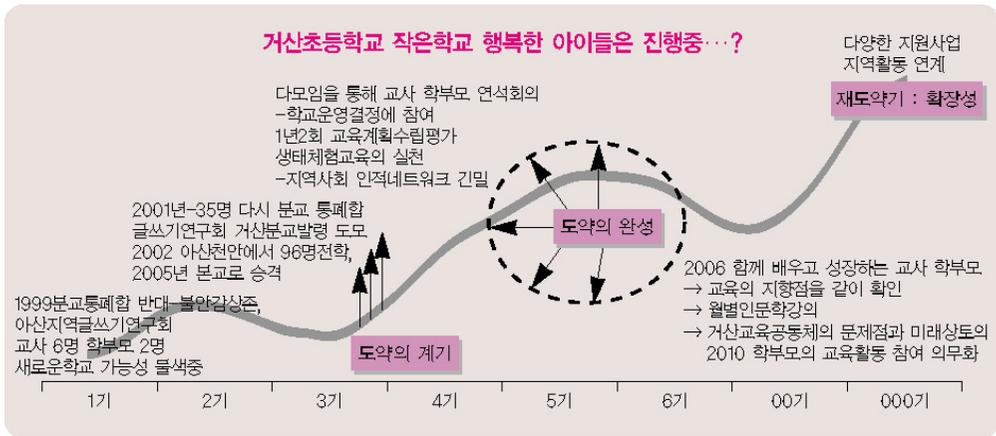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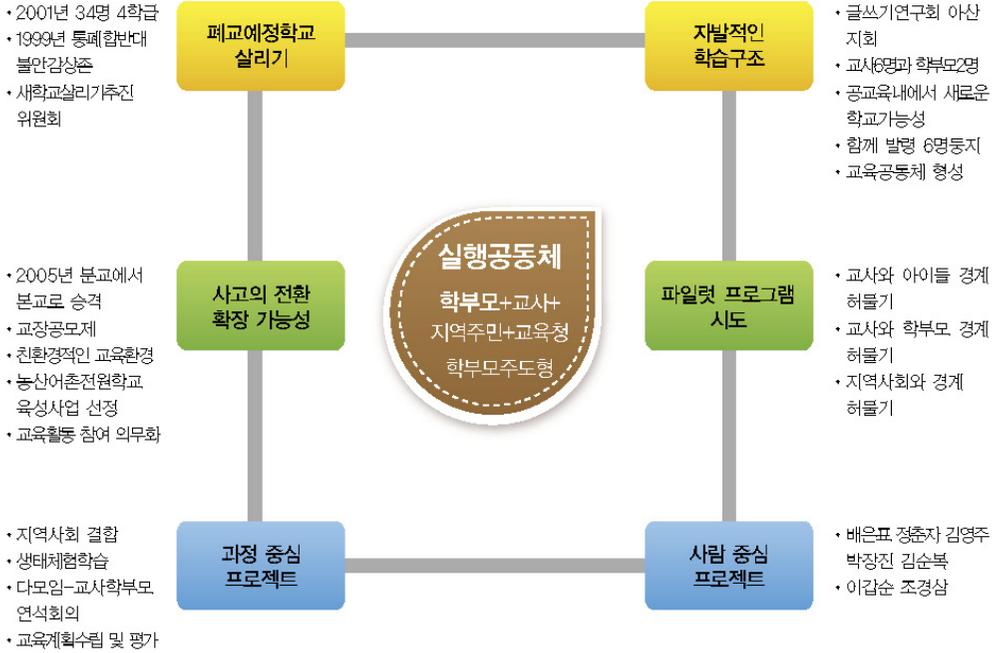
- 교육전문가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대 안함
 - 진행되다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봉동, 봉서, 삼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과 변화를 시도해도 좋은 학교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임
 - 형식적인 지원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함
 - 학교 하나를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들까지 끌어내고자 하는 인식의 폭이 커야 하는데 불가능 하다봄
 -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에 따라 달라 진다고 생각함(학교가 교장의 리더십에 따라 변화되는 사례와 비슷)
- 교육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음
-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음
 - 전북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의 뜻(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및 학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설명했지만 인식이 거의 없음
 - 방과후 하면 거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이해는 지역아동센터 이외는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
 -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다고 보여짐
 - 학교의 지역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과 일부 관계자의 인식이 전부임
 - 특히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해결방안

- 원주군 주도의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되므로 수위를 낮추는 정책 시행 필요
 - 행정만 해온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잘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교육 및 홍보 필요
 - 우선적으로 양대 기관의 소통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해당 기관에 교육예산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및 교육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집행에 대한 개입이 어렵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 탐색 필요
 - 학부모의 교육요구가 관내 학교 변화로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
 - 원주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과반이상은 인근 전주에서 통학함을 알리고 지역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변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타운 미팅 시도

3.4 도농복합형 사례 - 아산시 거산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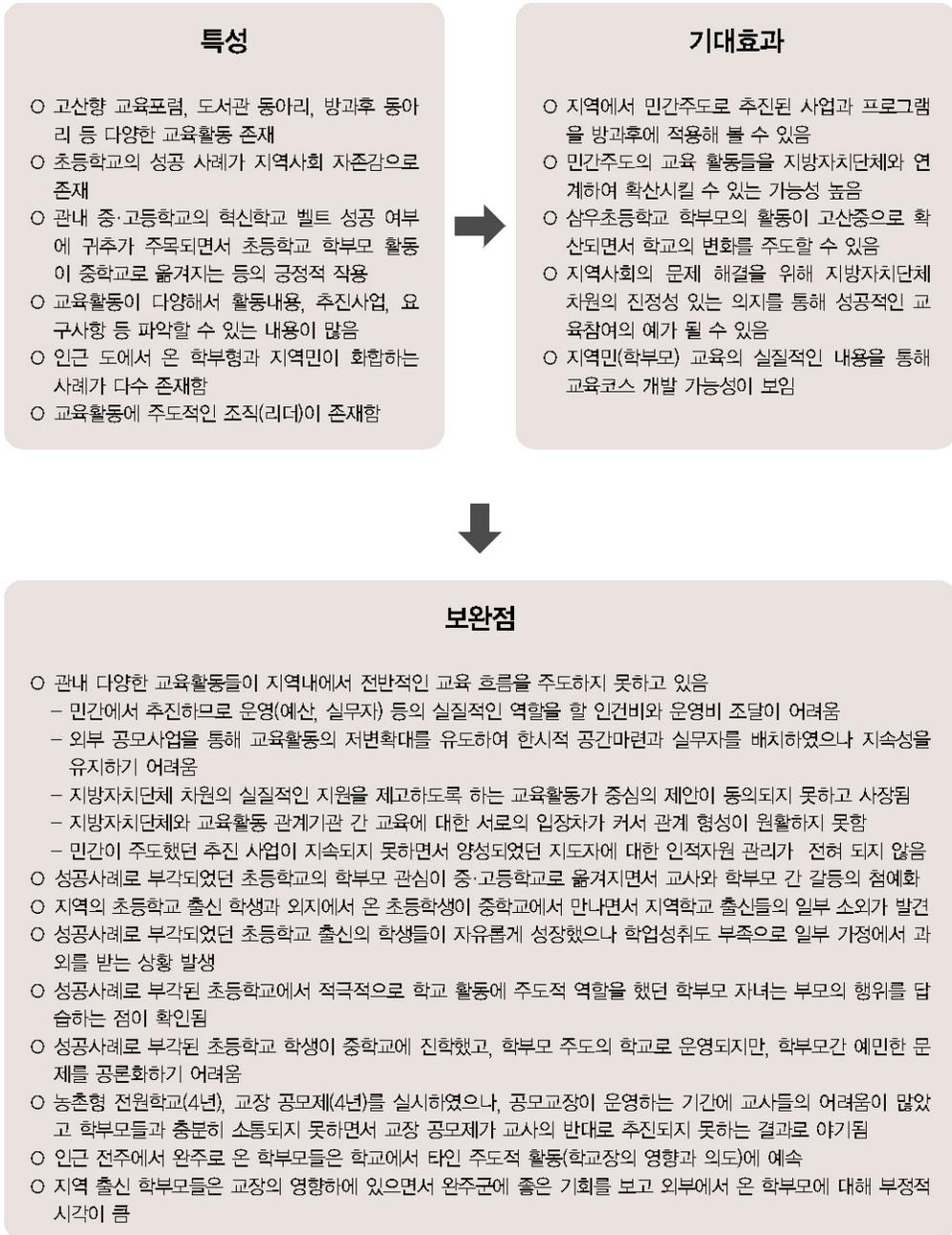


거산초등학교의 교사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는...

- 남한산초를 방문하고 나서 새로운학교를 만들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계기의 제공
- 아산지역글쓰기연구회 소속교사 거산분교에 동시에 발령(6명)
- 생태체험교육으로 교사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의 상 수립
-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인적네트워크의 긴밀한 결속력을 확보(네트워킹이 가능한 모델)

4. 농촌형(고산, 용진, 화산, 소양, 구이, 상관, 남관)

4.1 지역 특성과 연계한 교육 발전 방안과 사업





지역사회의 인식

-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들(초등학교 성공사례)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외부의 교육전문가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음
- 지역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들이 서로 공유되지 못함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시범사업, 예산부족, 이해관계의 차이)는 가능한 가능한 지양해야 함
- 향후를 담보할 수 없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교육사업의 모든 폐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봄
- 성공사례의 학교가 반드시 좋은 학교, 좋은 모범 사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음
- 초등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되려면 학교가 하는 대로 따라가 주면 된다는 인식이 큼
 - '교육하면 학교라는' 사고를 쉽게 버리기 어렵다고 함, 학교에서 해주는 교육이 제일 저가이며, 학교 학습성취 믿음 강장 큼
- 초등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되려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부 있음
 - 학교는 21세기 교육을 따라가지 못함
 - 말로는 인성을 주장하고, 속내는 즉, 공부도 잘하고 끼도 있어 뭐든 잘했으면 하는 만능의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
 - 교육에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며, 국가 다음이 학부모의 문제라고 보고 있었으며
 - 학부모의 가장 개선할 문제는 자유로운 사고와 인성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학습의욕은 인성에 따라 부가적으로 오는 것이니, 자유로운 사고와 인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학습성취가 우선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봄
- 지역사회 학부모들도 학업 성취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크며 도시와 동일하게 보고 있음
- 지역 출신 학부모는 외부 교육전문가 활동에 부정적 시각은 많지 않고, 도시에서 귀촌한 학부모는 외부에서 온 교육전문가 활동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으로 확인됨
- 지역 출신의 학부모는 성공한 초등학교를 동경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나서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능력이나 주변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대단한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음
- 교육문제가 대두되어 논의되지만 말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고 실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봄
-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 중심의 교육과정과 마을 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봄
- 마을 사무장과 지역위원회는 마을에 있는 자원으로 체험 + 교육을 접목한 현장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봄
- 원주민들은 마을 공동체 복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크게 갖지 못함
- 이주민들은 마을에 공동체가 파괴되었다고 인식하지만 개인이 해결할 문제라 보지 않음



해결방안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이 농촌형지역을 넘어 완주군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
- 민간주도의 교육활동들이 갖는 한계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으로 해소
 - 민간의 교육활동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조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접근 필요
 - 민간 주도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결과도 그에 맞게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선회 필요

- 교육에 대한 민간 관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이 달라 오는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접근
 - 민간주도의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만을 강요하지 않아야 함
 - 민의 공모사업을 통한 한시적 사업추진에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함
 - 사회 저변에 걸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학부모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역할로 문화로서 정규교과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려면 학부모(지역주민과 면대면으로 만나)와 실질적 만남의 과정에서 해결 가능함
 - 학부모의 사고 인식(공부잘하는 아이, 인성 좋은 아이, 만능이면 더 만족스러운 아이)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준비해야 함
 - 학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수용하는 보편적 방식의 지원 필요
 - 지역출신 학부모는 교육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귀촌한 학부모는 교육전문가 + 주도적인 학부모의 결합 형태로 지원 또는 컨설팅
 - 지역출신 학부모들의 주체意識과 인식전환을 위한 코스개발과 실행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 마을사업과 접목된 현장에서 교육과정 체험 + 마을체험을 하게 하는 마을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마을의 자원파악 + 마을주민 + 교육전문가 + 문화예술기획자 + 프로그램 내용 도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 예시) 학독 프로젝트,**
 마을에 있는 학독 조사 → 학독 소유주민 탐색 → 소유주민 탐색을 위한 미션지 공동 작성 - 마을체험(마을트레킹) - 학독 사료 및 설명할 마을주민 탐색- 사료 및 설명할 마을 강사 탐색을 위한 미션지 공동작성 - 학독에 대해 마을분에게 듣기(사전 마을에 학독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 준비와 탐색을 통해 지도자는 충분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함) → 마을체험(문화체험)
- 예시) 음식프로젝트**
 마을 할머니중 음식 잘하는 분 조사 → 음식 잘하는 분 탐색을 위한 공동미션지 작성 → 음식 준비를 위한 재료 탐색 → 재료 탐색을 위한 미션지 공동작성 → 마을 체험(자연체험-만경강뚝목다기) → 마을 할머니 강사로 섭외하기 → 할머니 섭외단 구성하기 → 할머니와 실습하기 → 마을 체험(숙박체험)
- 예시) 마을놀이 프로젝트, 빈집 프로젝트, 아지트 프로젝트**

4.2 지역내 교육 발전 사업 추진시 고충

특성

- 공교육내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성실한 방과후 운영사례(공교육사례, 민간교육사례)가 다수 있음
- 교육변화에 대한 기대와 이해가 잠재되어 있음
- 타지역의 성공한 학교의 사례에 열망이 대단히 큼
- 인근 도시 거주자와 원주민이 만나는 장이 완주군
- 교육 제반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음

기대효과

- 방과후 건강한 운영사례를 모아 저변으로 확대 가능함
- 교육변화에 대해 잠재되어 있는 기대와 이해를 수면위로 부상시켜 원주교육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 교육에 대한 원주민만의 합의를 면별로 도출한다면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 원주군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유도가 가능할 수 있음



보완점

- 지역사회에서 교육적 논의가 소수 집단내 한정되어 반복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방향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투자가 진행됨
- 원주민이 지역교육문화를 주도하지 못해 이주민의 교육활동 주도에 기대게 되는 상황임
- 건강한 교사집단이 재직 중에 변화를 주도하나, 발령 나면 원점이 되는 악순환 반복
- 교장 공모제나, 혁신학교 등 교육청 주도의 학교변화를 추진하는 사업에 한번 참여하고 난 교사는 재추진에 부정적인 경우가 있음
 - 교사의 어려움을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결과 교사담합이 형성됨
- 대체적으로 다른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함
- 내 자녀의 문제점(공적인)을 생각하지 못함
- 모범 교사는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공부를 못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
 - 교사 집단의 학생 이해 정도를 보여줌
 - 위기아동에 대한 대화의 어려움
- 지역사회는 더디게 가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 교육활동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생적 활동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함
 -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요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함
- 과정에 어려움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성공한 결과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음
 - 성공한 학교 사례, 성공한 민간주도의 교육활동 사례 경우
 - 과정에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노력은 소수에게서 일어남



지역사회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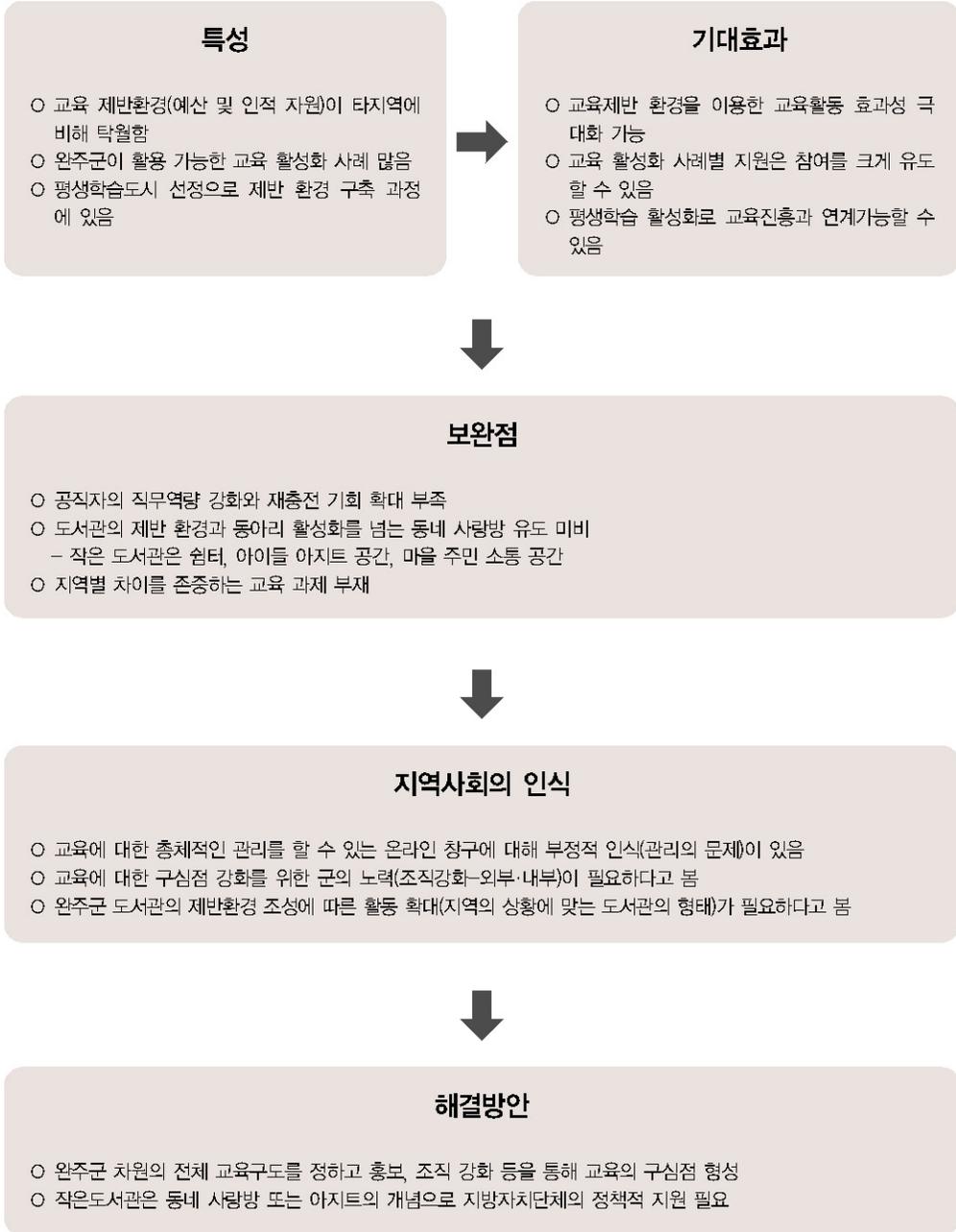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함
 - 교육사업은 물론 일반사업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음
 - 정치적 배경이 없는 단체(개인)나 추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지를 받지 못함
- 지역사회는 비단 교육활동뿐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지켜봐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음
 - 교육활동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생적 활동이 성장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기다리지 못함
 - 예산을 지원하게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생각함
- 다른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는 안타까운 문제로, 우리아이에게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봄
- 학벌과 인간성이 비례한다는 생각이 큼
- 지역의 성공한 학교에 대해 원주민의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많음
 - 성공한 학교의 학부모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시각
 - 학부모의 원주민에 대한 예의 없는 행동
 - 학부모 구성원의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과 처신
 - 학생들의 버릇없음이 주는 인상이 성공사례 학교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실망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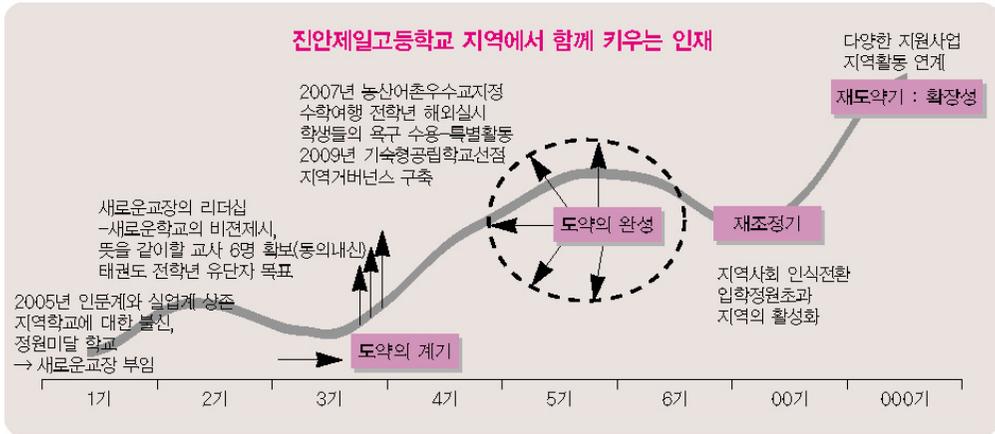
해결방안

- 지역사회의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필요
- 자생적으로 조직(동아리)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됨으로 조기성과를 지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필요
 -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하기 전에 객관적인 약속을 통해 정해진 요구를 청하면 될 것
- 내 자녀의 문제, 타 자녀의 문제를 공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간 대화 필요
- 원주민과 이주민, 생주민의 상호 이해할 기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여
 - 문화적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 등
- 원주민의 교육에 대한 2대 항목에 대해 지역적 합의를 도출 추진
 - 인성과 자유로운 성장과 공부 중 무엇이 우선인지 선택하는 논의
 - 원주민만 교육 목표와 방향을 함께 도출

4.3 교육 진흥을 위한 완주군 차원의 대안 마련



4.4 농촌형 사례 - 진안 제일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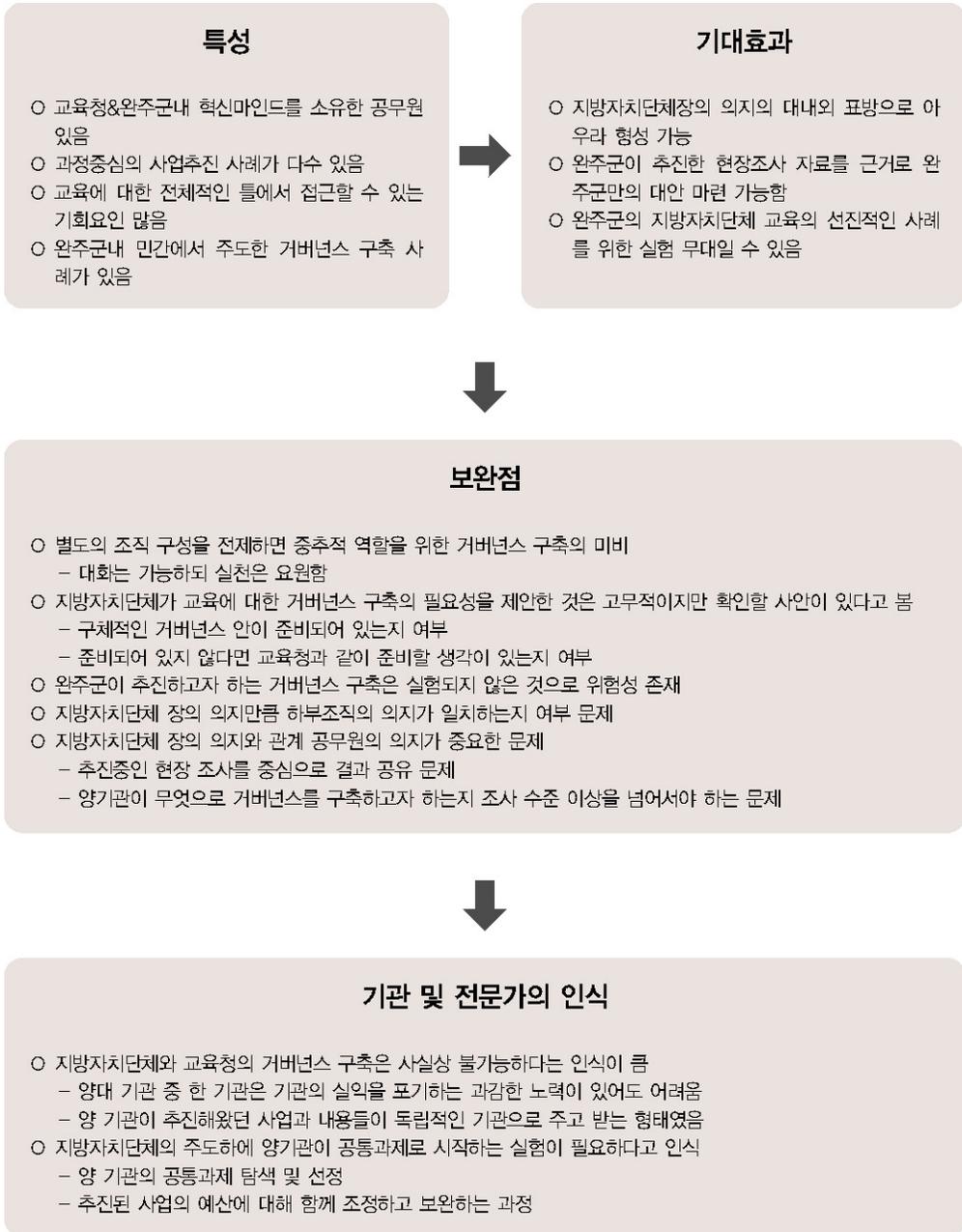


진안제일고등학교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학교...

- 정원미달로 인한 지역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인구유출
- 새로운 교장선생님의 부임과 교사들의 뜻 맞출
- 지방자치단체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 기숙형공립학교로 지정되면서 숙제를 풀어가는 연계교리를 확보(네트워크링이 가능한 모델)

5. 기관 및 교육 전문가 그룹

5.1 지역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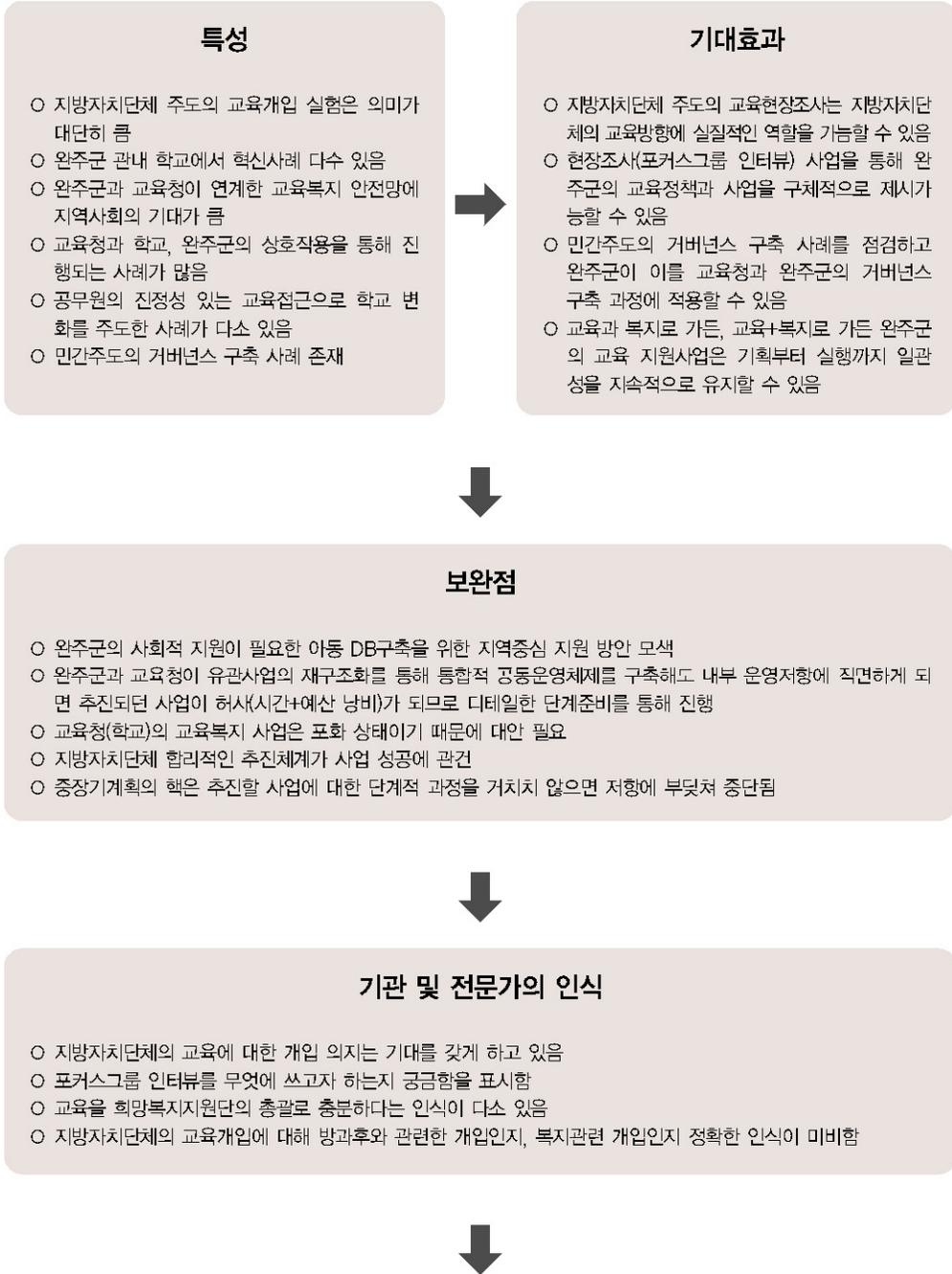
- 결과에 집중되는 현실 타계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 관심 있다기보다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민의 지지를 끌어 낼 영역은 교육파트 뿐이라는 인식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라는 인식 대두
 - 교육전문기관의 연구와 연구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육전문성을 갖춘 팀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연구영역 수행도 필요하다 봄
 - 교육청과 차별화 필요(지방자치단체 주도 방향 설정, 지역상황 고려)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세운다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봄
 - 교육청 소속은 관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농후
 - 행정공무원과 같이 교육관계자 사고도 무서울 정도
 - 공적 위치 보장으로 대내외 활동 극대화 필요



해결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대내외 적으로 표방하는 정책 시행
- 원주군은 진행된 현장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대안을 가지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만남 제안
- 원주군의 비즈니스 개념을 교육에 정책적으로 도입시켜 교육청과 실질 교감
- 원주군 주도의 전담기구를 통해 교육청과 공동과제 선정
- 원주군 주도의 교육청과 공동과제를 실천, 리뷰를 통한 예산의 효율화 공동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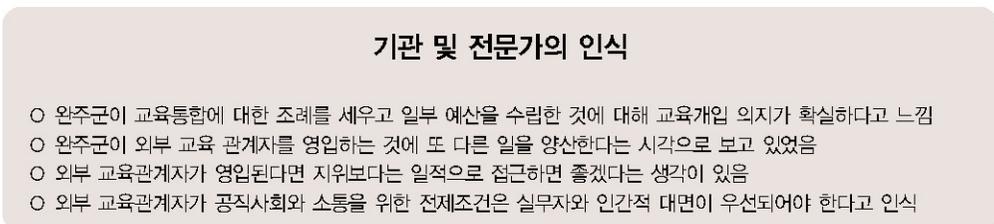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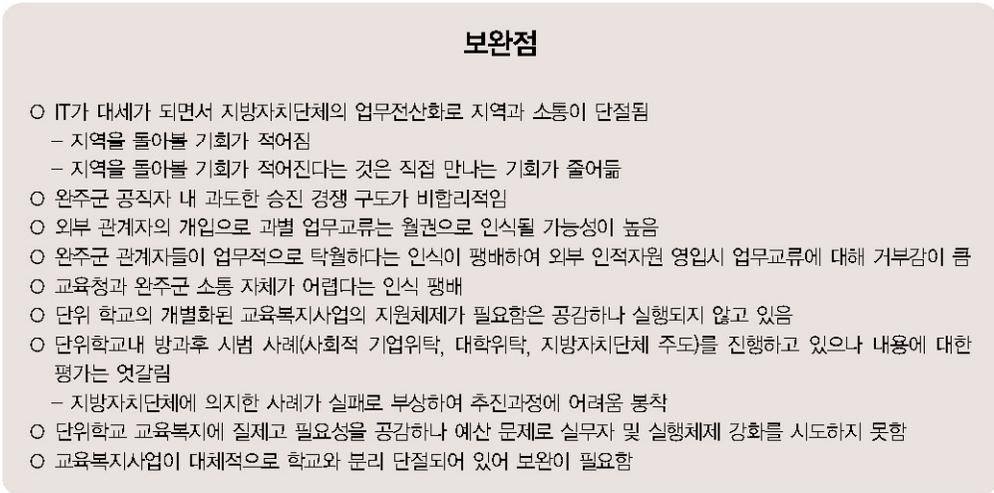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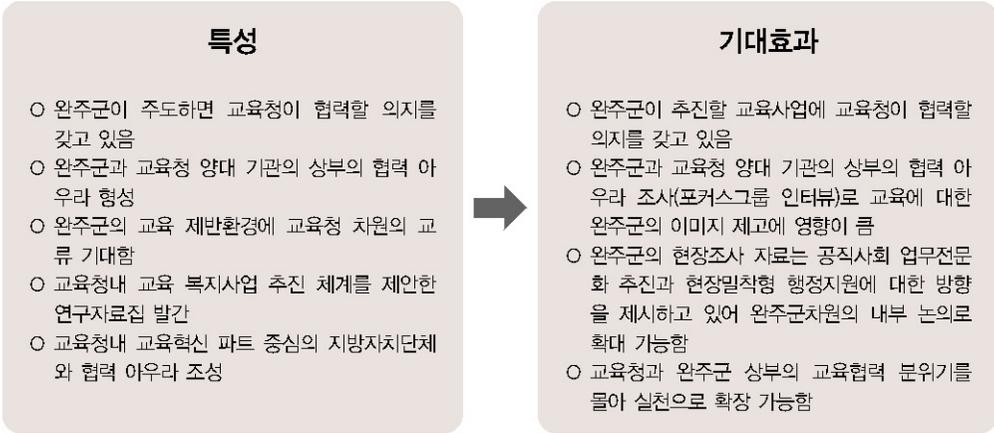
5.2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해결방안

- 원주군이 추진한 현장조사 사업에 준하는 사업 실천
- 현장조사(포커스그룹)사업으로 하고자하는 실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주도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원주군이 중점적으로 활용
- 교육과 복지를 구분할지, 교육+복지를 지향할지는 원주군의 정책방향 따라 달라질 것이며, 방향이 정해지면 대민 홍보로 해소 가능

5.3 교육진흥을 위한 완주군·교육청 차원의 대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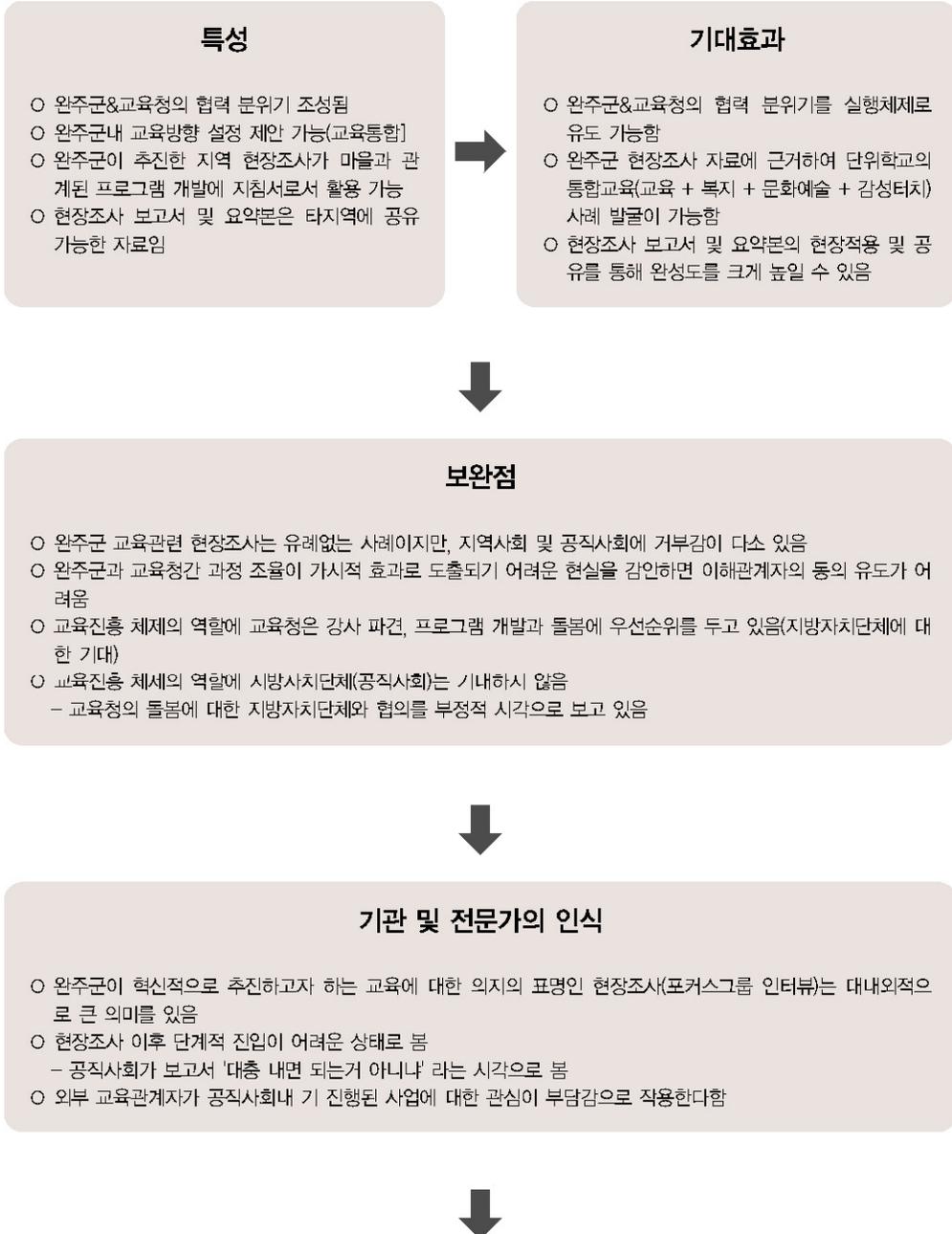
- 공직사회 실무자가 전체 틀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이 어려운 환경
 - 상부 결정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다소 많음
 - 실무자의 주체적인 의지로 일을 하고자 할 때도 상부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려움
 -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음(승진을 포기 하면 모를까)
-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복지사업의 질제고, 방과후 관련 사업의 실질운영의 전반적 문제를 예산의 문제로 보고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 활용의 유연성에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봄
 - 교원집단의 일부 교육의 사명에 대한 몰이해로 직업적 접근의 팽배로 봄
- 전라북도 교육청도 교육국과 행정국이 이원화 된 상태로 단일화 자체가 어려움
- 전북교육청 차원의 교육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체제 구축이 내부적으로 산재한 문제가 많아 불가능 하다고 봄
-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봄
-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양하려는 의지에 대해 교육청이 무책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짐
- 단위학교 지역사회복지사가 복지적 활동에 몰두하지 못하는 이유를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느낌
 - 학교 임직원과 교육복지사간 역할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도록 학교가 과도한 행정 요구와 개입이 있다고 판단 함
-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체제 및 모형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행체제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게 다루지지 않고 있다고 봄



해결방안

- 원주군은 현재 교육통합 조례가 세워졌고, 예산수립(의지공식화 필요)
- 공직사회의 탁월성은 유지하되, 보완해야할 파트만 외부 전문팀을 영입하거나 정책시행을 통한 지속적 자문
- 외부 교육관계자의 활동 영역에서 공적 포지션이 주는 부대효과를 미팅과정에서 인식 변화 가능
- 교육청이 안고 있는 어려움(교육복지지원체계 필요, 방과후 시범사례)을 원주군과 교육청이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 해결점 탐색

5.4 교육 진흥 체제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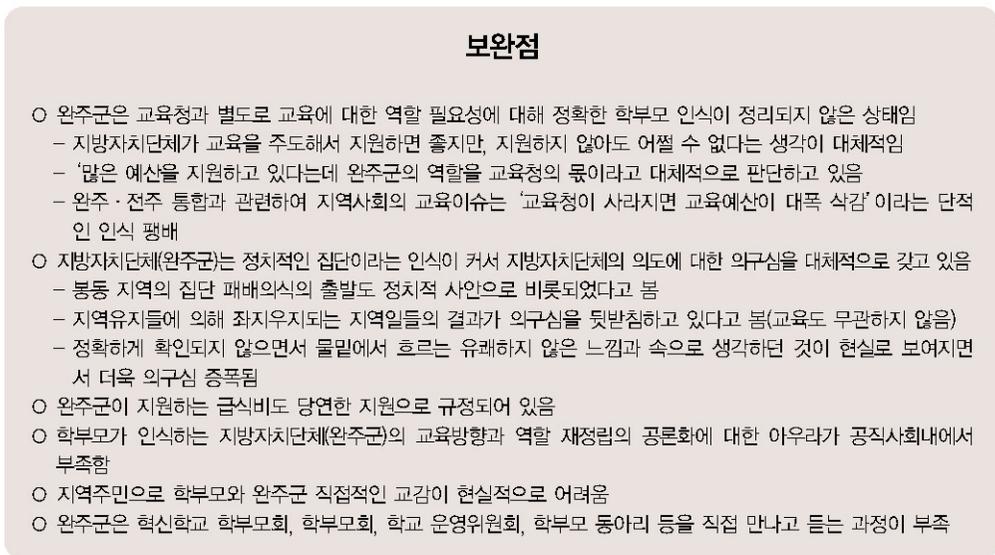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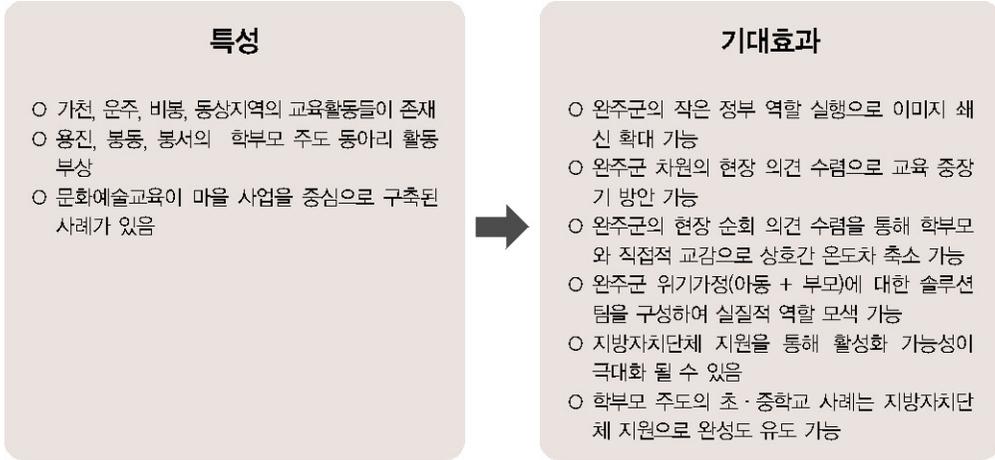


해결방안

- 완주군이 추진한 지역현장(FGI조사)인터뷰는 완주군이 향후 선택할 교육방향의 한도에서 현장 실천을 통해 성과를 보일 것임
- 완주군은 향후 추진사업으로 교육부분을 선택해야만 하는 당위적 흐름에 선도적 편승 사례로 기억
 - 지역(마을)과 연계한 통합교육(교육 + 복지 + 문화예술 + 감성터치 + 마을체험) 프로그램 실천여부가 결정
 - 현장조사 보고서(FGI)의 현장 적용과 공유
 - 교육청과 완주군이 현장 프로그램에서 만나 협력 분위기가 실제 협력으로 연결 될 것
- 교육관련 전담 실행체제 구축
 - 완주군 교육방향 주도
 - 마을과 연계된 통합프로그램 실행
 - 교육청의 요구와 완주군의 요구에 점점 거버넌스로 구축으로 해소

6. 학부모

6.1 교육 진흥을 위한 학부모 차원의 대안



학부모의 인식

- 완주군은 지역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작은 정부로 인식하고 있음
 - 공공성에 의미를 두기보다 영향력 있는 그룹 및 개인들의 압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많다고 봄
 - 일에 의미보다 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을 '밥사고 술사는 것'이라는 관례로 봄
- 현장에 생각을 듣기 위해 인터뷰 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봄
 - 교육관련 해서 현장 조사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라 지켜보고 있음
 - 완주군 차원의 현장 조사 추진이 긍정적인 면이 큼
- 군관계자와 현장에서 인터뷰 하면서 실질적인 아이들의 일상을 얘기할 때 신뢰가 되고 공감이가 된다고 생각함
- 사회적 지원 대상 범위(아동 및 가정)를 농산어촌의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함
 -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60% 때문에 40% 일반 아이들이 혜택 받고 자란다고 봄
 - 성장기 외부 자극에 빈약한 농촌의 아이들에게 관내 교육시설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 안전망 차원의 우선순위는 필요하다고 느낌
- 완주군 관내 아이들이 색다른 환경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완주군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기관으로 봄
 - 지역과 연결한 경험들(마을, 로컬푸드, 그 외 전문가의 협조)을 추진할 수 있음(완주군관내)
- 위기 아동 뒤에 반드시 위기 가정이 존재하며, 완주군 주도의 범지역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봄(지역사회 문제로 부상되고 있음)
 - 초등학교는 늦지 않았다고 봄
 - 중학교는 늦은 감이 있다 봄(방과후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차원의 모색 필요)
 - 고등학교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봄(부모님도 감당 안되고, 학교선생님도 감당 안됨)
 - 위기아동의 실제 피해자는 일반아동
 - 가장 시급한 지역과 아동을 중심으로 완주군이 추진해야 한다고 봄



해결방안

- 지방자치단체(완주군)는 작은 정부로서 교육의 방향 및 역할 정립하여 이미지 쇄신 필요
- 완주군의 지역 순회로 학부모와 타운 미팅 형식의 의견청취 자리 조성
- 그룹별 타운 미팅 또는 FGI 조사 방식으로 중장기 발전 방안 고려
- 세계의 교육변화와 중앙의 교육변화에 대해 군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전파하는 플랫폼 역할 탐색
- 완주군(농산어촌)의 사회적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실질 논의 구조를 통해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완주군수)이 선출직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공표하고, 교육에 공공성을 갖는 지원과 노력에 학부모와 완주군수가 다양한 만남의 장을 통해 건강한 거래 표방으로 1차 해소 가능
- 완주군의 위기기정 솔루션 팀 구성(교육+복지+문화예술)하여 시급한 지역과 대상부터 시행

7.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을 위한 제안

7.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의 함의

-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CSR은 각국의 경제사회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각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 와 고용 창출 등이다.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이다. 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윤리 경영, 제품 안전, 여성현지인소수 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을 말한다.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 공헌 활동 또는 자선교육문화체육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³⁾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따온 말로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확대 되었고, 기본적 주민생활 지원 이상의 활동 즉 윤리적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 교육은 공교육의 특권아래 외부 개입이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사회구조적 변화에 의해 더 이상 공교육에 의지할 수 없는 현재적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확대된 역할에서 교육을 주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작은 정부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평가 받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이번 FGI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의미에 첨언하여 새롭게 제안하는 의미의 'MER'이다.

3) 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시사경제용어사전)

7.2 완주군 교육지원 사업의 현재적 의미와 새로운 접근

- 완주군은 전국에서 뒤지지 않는 교육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급식지원·대응투자·직접투자·시설투자 등으로 볼 수 있고 교육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주군의 교육경비보조를 뛰어 넘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한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필요함.
- 완주군이 지원하는 교육사업 예산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완주군이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고, 특히 교육에 대한 행정의 입장에서 교육지원 예산에 대한 개입을 추진할 타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완주군내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센터들이 다양한 영역과 파트에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통합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개별화된 사업 추진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교육청과 학교별로 배분되어지는 형태를 보완하여 완주군이 교육정책방향과 역할을 갖고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봄.
 - 교육청·학교 교육의 본산 →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사료됨.
 - 지역과 같이 만드는 학교(학부모 + 학생 + 지역사회)는 다양한 활동들을 묶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완주군은 행정의 강점을 살려 교육청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탐색하고, 공부 이외의 다양한 영역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시야를 확대시킬 수 있는 혁신적 사고로 교육청, 학교와 연대 협력을 해야 함.

7.3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완주군의 주도적 역할

- 교육문제는 교육청과 학교의 공교육내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완주군이 마을(지역사회)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해야 함.
- 완주군은 ‘교육청 주도의 교육, 학교 주도의 배움, 교육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에서 ‘마을의 학교, 동네의 학교, 지역의 학교 즉 우리 모두의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사회전문가를 연결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찾아야 함. 학습중심의 집중적인 지원도 외면할 수 없지만 지역민과 직접적인 타운미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편교육에 중심을 두고 지역민(유권자)의 공감과 지지를 유도하여 건강한 교육적 거래가 가능한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실적은 참여 기관에게 주는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력해야 함.
- 학교에 대한 지원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하고 완주군만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사업을 추진 및 발굴해야 함.

7.4 Municipality의 교육적 공헌(MER)을 위한 제언

○ 완주만의 ‘작은학교형’ 프로젝트 추진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사회전문가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학교의 이야기를 마을의 이야기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구조 형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학교와 지역사회(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 지역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함.
- 타운미팅을 통해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과정을 주도해야 함.
- 방과후 사업(방과후프로그램, 학습, 돌봄, 교육복지사업)을 활용해야 함.
- 방과후 사업 과정에 필요한 강사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양성, 마을과 연결된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함.
- 교육사업 중 직접 교육사업에 문화예술 교육을 접목시켜 과정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완주만의 ‘도농복합형’ 프로젝트 추진

- 삼례의 역사적 의미와 생활세계를 접목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봉동지역의 평생교육 ‘찾아가는 늘배움터’ 사업과 연계(학부모교육) 필요
- 봉서지역 사업단지 근무시간 내 ‘아버지 교육’ 기업의 사회적 공헌 요청

○ 완주만의 ‘농촌형’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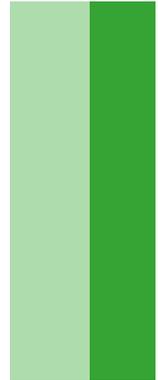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프로젝트 추진
- 민간주도 교육활동의 실질적 지원과 현실적 요구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 방향 선회 필요

○ ‘작은학교형 + 도농복합형 + 농촌형’ 공통프로젝트

- 마을 문화복원 체험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 마을 생활복원 체험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 청소년(중.고등학교) 직접 지원(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완주군 차원의 총괄적 대책이 시급한 사안
- 위기아동에 대한 완주군의 실질적 대책(위기아동+ 위기가정)마련
 - 무기력증에 빠진 아동·청소년 대책 마련
 - 성장기 아동·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학교와 연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 완주군 차원의 교육방향에 대한 관점 사안
- 보편교육의 실행하되, 아동의 건강, 기초생활을 중점적으로 지원
 - 기관별 지원이 아닌 지역별 지원으로 방향 선회 필요
 - 당위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방향에 편승한 지원으로 궤도 수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방향과 역할 중 프로그램 측면은 정규교과 이외 방향에서 탐색
 - 아동·청소년과 직접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 교육이 접목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필요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



1. 교육환경

1.1 환경 분석

교육환경은 완주군의 교육적 공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 예산, 조례, 실무협의 정도, 실무협의체 구성 가능성을 분석하고 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표1]을 정리했다.

[표1] 완주군 교육환경

(2013기준)

구 분	지방자치단체	학 교	교육청(전북, 지역)
예산지원	120억 지원 시설투자,급식지원,대응투자, 직접투자	교원집단의 이해 부족	방과후예산 30억지원
조 례	교육경비지원조례 교육통합지원센터 조례		
실무협의 정도	단위 학교별 협의	학교장에 따라 협의	전북교육청,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간 실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3회 진행
실무협의체 구성	가 능	학부모회 연동 가능	가 능
역할분담	교육청과 합의후 도출된 과제 역할 기대	학부모 동아리 형태	지방자치단체 주도 요청

유형별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의 기구(교육통합지원센터)가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의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제3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표2]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 제3의 기관 역할

구 분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사회전문가 결합에 적극적 개입 및 컨설팅지원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학부모교육지원 및 교육공동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동 추진 방과후 프로그램과 민간주도의 교육활동 지원과 현실적 요구 기반의 방향 전환
학 교	공교육 역할 확대 및 방과후활동에 유기적 관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접근	혁신학교 교장공모제 등 다양한 변화 모색
지역사회	교육과 지역사회 생활 밀착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안전망 설치 및 학부모 교육 지원	기존의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전형으로서 더 큰 역할 담당
학부모	공교육 신뢰 극대화 형태	학교와 사교육 병행	혁신학교 추진 과정에서 주도적이며 비중 있는 역할 담당
제3의기구	학교와 지역사회간 연계 조정	제3기구에 의한 연계조정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연계 조정

1.2 보완점과 해결방안

유형별 공통의 보완점은 교육문제 협의 창구 부재이며, 내용으로는 완주군의 교육 방향에 부재, 완주군과 교육청의 공동 사업 발굴, 완주군이 지원하는 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의무적 지원이라는 지역사회 학부모의 인식 전환 교육 및 예산 집행의 한계, 지역내 교육활동 공유 부재, 농산어촌 지원대상 확대 등이었다. 소수의 의견이나 간과하기 어려운 과제로는 주체기관의 성과위주 사업 추진, 학교 교사 집단의 과중한 업무, 실무 중심 교육협의체 부재, 맞춤형 학부모 교육 등이다. 해결 대안으로 제3기구를 통한 전달체계 구축, 인식전환 교육 및 홍보, FGI보고서를 통한 교육방향 설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 가능하다 보여진다.

[표3] 유형별 공통의 과제 및 해결 방안

구 분	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보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제 협의 창구 부재(교육 전달 체계 부재) - 지방자치단체 정확한 교육방향 부재 -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교육청간 공동사업 발굴 - 지방자치단체 교육예산 지원 의무적이라는 인식 팽배 및 집행에 대한 개입의 한계 - 지역사회 교육활동이 공유 부재 - 농산어촌 지원 대상 확대 - 아동·청소년 성문제, 무기력증, 위기(아동+가족)아동 지원 대책 - 서비스 공급 관계자 피로 해소 대책(교원, 공무원, 휴먼서비스지원 실무자) - 주체기관의 성과위주 사업이 주를 이룸(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학교 교사 집단의 과중한 업무 - 실무중심 교육협의체 부재 - 맞춤형 부모 교육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의 기구를 통한 전달체계 구축(교육통합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 교육 예산 지원관련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 교육 및 집행 개입 방법 - FGI 보고서를 기반한 교육 방향 설정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간 공동추진 사업 발굴 - 지역사회 교육활동 공유 계기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논의 장 마련 - 방과후 활동 지원으로 지원 대상 일부 해소 - 유형별 맞춤형 부모 교육 실시 		

1.3 지역 현안 및 대안

지역현안에는 대상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은 교육전달체계 구축으로 해결 가능하였다. 제3기구의 한계로는 서비스 공급업체 관계자 치유, 위기아동 및 가정 지원 책, 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아동청소년의 무기력 등에 대한 문제였다.

[도식1] FGI 조사 보고서에 의해 조사된 지역 교육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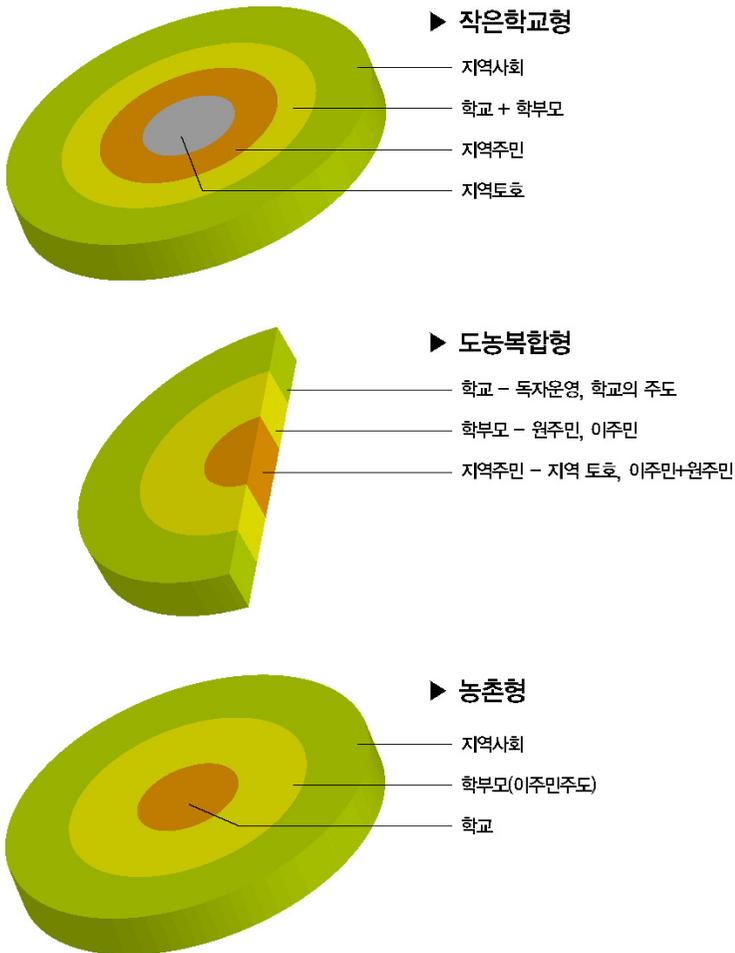
[도식2]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제3기구를 통해 해결 가능한 현안



1.4 유형별 역할 구도

작은학교형에서는 지역사회가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토호 전체를 포괄하는 주도적 역할을 보이고 있고, 학교의 독자운영 자체가 어렵다. 도농복합형은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간 개별화 정도가 심각하다. 농촌형에서는 지역사회가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을 포괄하지만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역할 구도에 큰 차이가 없고 내용적으로 보면 학부모와 학교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도식3] 유형별 역할 구도-작은학교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1.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발전 계획

지방자치단체 단기 과제는 교육전달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 예산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 교육 및 홍보, 맞춤형 학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 조사, 교육 공동체 발굴 및 지원,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인식전환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간 자녀 교육 문제 공적 이해 계기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강사인증제 도입, 아동+ 청소년의 보건, 의료에 대한 중점적 지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한 교육통합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위기(아동+가족)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 아동·청소년 무기력증, 아동+ 청소년 성에 대한 문제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 문제로 대두 되었다.

중장기 과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으로 마을체험코스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공동사업 발굴, 완주군 방과후지원센터 공간확보, 서비스 공급체 치유센터 공간확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농어촌 지원대상(아동·청소년)확대, 완주군의 교육발전 방향 설정후 예산지원, 도서관의 재 개념화 및 동네사랑방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간 자녀 교육 문제 공적 이해 및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중앙정부 대응사업 추진 등으로 확인 되었다.

[표4]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적·중장기적 교육 발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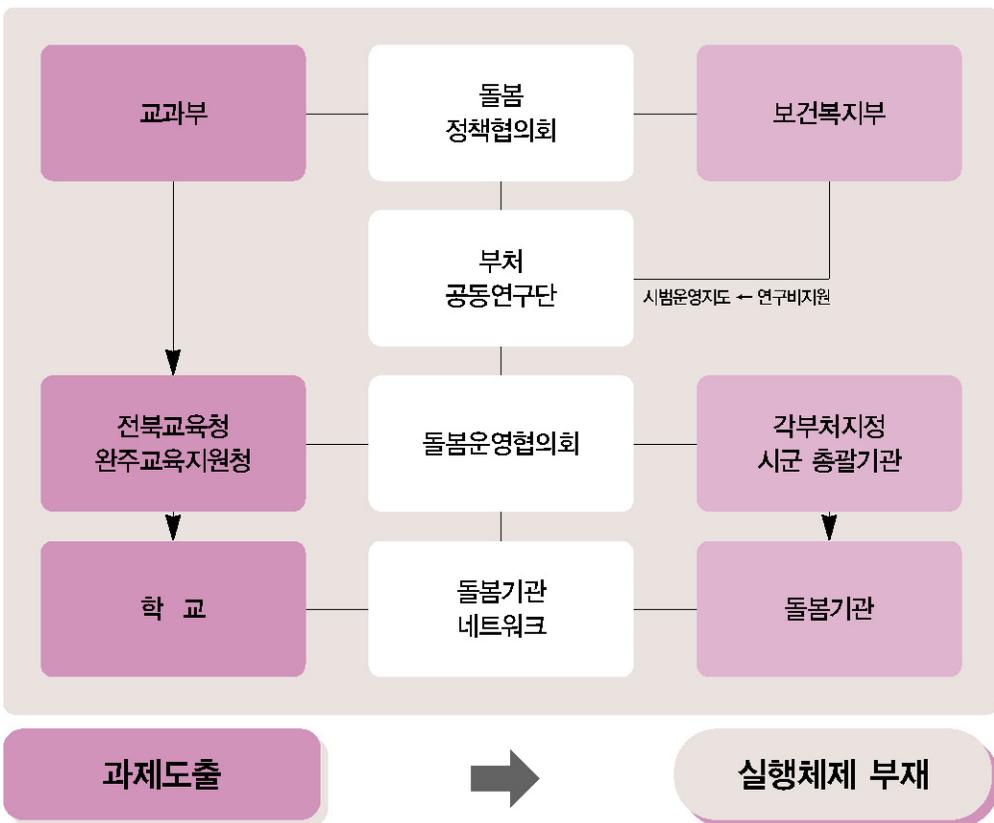
단기적 계획	중장기적 계획
교육 전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개발(교육과정과 마을체험코스의 연계)
가족에 대한 완주군의 실질적 대책 (무기력, 성교육) (지방정부 차원의 솔루션 팀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실무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 예산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연대 협력 공동사업 발굴
맞춤형 학부모교육 요구 조사 실시	완주군 방과후지원센터 공간 확보
교육공동체 발굴 및 지원	서비스 공급체 치유센터 공간확보
서비스 공급체 치유프로그램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인식전환 교육	농어촌 지원 대상(아동 청소년) 확대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간 자녀 교육 문제 공적 이해 계기 마련 프로그램	완주군의 교육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지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강사 인증제 도입	도서관 재 개념화 및 동네사랑방 사업 추진
아동·청소년 보건, 의료 중점적으로 지원으로 보편 교육 접근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간 자녀 교육 문제 공적 이해 및 해결을 위한 공론장 마련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접목 프로그램 개발	중앙정부 대응사업 등 추진

2. 교육 공헌 방향

2.1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 추진 체계(2012. 11)

범정부(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행안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 통합추진 체계가 구축되어 수요 조사 및 논의가 일단락 되었다. 범정부 기구의 한계는 방과후 돌봄을 초등학교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실행해나갈 실행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 따라서 완주군은 실행체제가 부재한 현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방과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표5]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 추진 체계



2.2 범정부 방과후 돌봄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전달체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드림스타트센터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의 방과후 돌봄 추진 기구가 시군에서 실행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행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하고 방과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의 획기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6] 범정부 방과후 돌봄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행정 단위	주 관	주요기능· 업무	관련 부처·기관
시군구 돌봄운영협 의회	교육지원청	종합적 돌봄 수요조사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지원청, 기초자치단체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유관단체 등)
돌봄기관 돌봄기관네 트워크	지방자치단체	돌봄 서비스 제공 및 돌봄 기관간 정보공유	학교,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단체, 방과후 아카데미, 제공기관, 드림스타트센터 등



2.3 완주군 행정 시스템 돌봄 실행체제 탐색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방과후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시스템은 드림스타트 센터(지역아동센터 포함)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드림스타트 센터는 100% 국비를 보조받고 있고, 향후 예산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완주군의 선택과 판단이 집중된다면 부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은 주민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양대 기관이 연대 협력될때 가시화 될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정부 방과후 돌봄 기구는 초등 돌봄에 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방과후 돌봄은 관내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학습, 교육복지사업 등까지 확대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은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이 연대하여 해결하고 교육적 공헌(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습 컨트롤 타워) 대한 영역은 또다른 차원의 접근 즉,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제3의 기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표7] 완주군내 행정시스템 돌봄 실행체제 탐색(표 재구성)

구 분	드림스타트	↔	희망복지지원단
		제3의 기구	
예 산	국비 3억 확대 가능		사업비 없음 2012년 외부유입 약2억
주무부처	보건 복지부	행정안전부	보건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체제기반	컨설팅 진행 및 준비	조례, 예산, 교육	전체구도 제시 가능
지원대상	12세이하 아동	주민+아동, 청소년	주민 지원(주민+아동청소년)
사업형태	직접사업 수행	직접+조정 연계	직접실행 조정 연계
직원규모	5명 (팀장, 보건, 간호, 보육, 사회복지)	미 정	9명 (공무원 5명, 전문요원 2명,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 노인돌보미, 전담관리자 1명)
역 할	- 취약계층 맞춤형통합 서비스 - 사례관리 - 아동의 빈곤 탈피 지원 - 아동 성장의 공평한 출발기회	교육통합지원	- 주민지원 - 대내외 자원연계 조정 - 권역확보로 현장 밀착 복지 - 통합사례관리 - 긴급지원,이웃돕기,독거노인

3. 실행 체제 분석

3.1 희망복지지원단 주도형

완주군의 실행체제 중 방과후 돌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중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실행체제를 분석해 보았다. 예산이 빈약하지만 지역내에서 추진하는 통합 지원서비스와 대내외 자원연결 및 조정, 지역민의 서비스 만족도 급상승 등은 총괄 실행체제로서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빈약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예산, 인력보완, 교육문제를 주도할 전문성이 보완된다면 현장 실행 능력은 아주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8] 희망복지지원단 주도의 실행체제

전제조건 : [학교(1) + 학부모(2) + 지역주민(3)] ↔ 연동 가능 지방자치단체지원 + 교육 정책 주도 가능 ↔ 복지연계조정			
희망복지 지원단 주도형(주민생활과) 주민복지 지원			
외부 환경 요인	중앙	장점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4월까지 설치도록 지시 사회복지 예산 급증 - 주민만족도 상승하지 않음 - 희망복지 지원단 설치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복지기능 강화 유도
		단점	예산 없는 설치 지시 체계구축 및 취지는 동의 - 척박한 사업비 현실
	완주군	장점	2013년 4월 27일 설치 전담인력 배치 및 체계적인 복지 지원
		단점	예산 매우 빈약(사례관리비 천만원)
실행 주체	희망 복지 지원단	장점	지역주민의 서비스 만족도 급상승 예산의 효율화 도모 극대화 드림스타트와 사업 유사성 → 희망복지지원단 주민중 아동청소년 포함 대내외 자원 연결 및 조정의 극대화
		단점	예산 매우 빈약 교육문제 주도 어려움 인력 재편성 필요 팀내 인력 소진 상태 큼(방문 및 현장 직접 대응 업무 과중)
		지역	완주군 전지역
협력기관		드림스타트(주민생활) → 아동복지(돌봄)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 단내 포함사례(부산 해운대구, 단양군) 주요 협력 내용(위기아동 + 위기가정/ 무기력청소년/ 성교육)	

과제도출



희망복지지원단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
예산보완, 인력보완, 교육문제 보완

3.2 드림스타트 주도형

완주군의 실행체제 중 방과후 돌봄을 주도할 수 있는 기관 중 드림스타트센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시군 전달체계의 실행기관으로 주목되고 있다. 또한 예산이 풍족하고 돌봄의 통합사례관리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12세이하 아동 돌봄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에 대한 확대가 가능할 때 방과후돌봄 실행체제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특히 방과후(방과후프로그램, 학습)에 대한 전문성 보완의 전제가 필요하다.

[표9] 드림스타트 주도의 실행체제

전제조건 : [학교(1) + 학부모(2) + 지역주민(3)] ↔ 연동 가능 지방자치단체지원 + 교육 정책 주도 가능 ↔ 복지연계조정			
드림스타트 주도형(주민생활과) 12세이하 아동 돌봄 지원			
외부 환경 요인	중앙	장점	범정부 차원 돌봄 기구(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요청
		단점	운영예산과 전담 인력 부재로 실행체제 미비, 초등 돌봄차원의 접근 중,고등학생 접근 미비
	완주군	장점	지방자치단체 교육 개입 논쟁 가열(지방자치단체 주도 교육개입 절실) 중앙→ 실행기구부재 → 기회요인 활용 → 지방자치단체역할 극대화 가능
		단점	실행조직 운영 및 예산 전담 인력 셋팅, 교육 인력보완 필요, 기구확대
	도교육청	장점	돌봄 관련 전수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전달 예정, 방과후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단점	학교 복지 역할 타당하지 않다고 봄. 교과부 주도 학교 돌봄 기능 강화 중앙정부와 전북교육청 돌봄개념과 교육복지 개념 차이 - 중앙정부 돌봄(방과후프로그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 - 전북교육청 교육복지 사업 내(돌봄, 방과후프로그램(학습), 교육복지우선사업)
실행 주체	드림스타트	장점	중앙정부의 드림스타트 정책적 지원 확대 및 제반 환경 조성 범정부 돌봄기구의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드림스타트) 담당업무 -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 사업 유사성으로 연대 협력 가능 - 타지역에 비해 운영 탁월 예산 확보 및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 높음
		단점	지원대상 확대(12세 이상) 필요, 복지 사업 편중 가능성 높은(돌봄), 교육+복지의 총괄 구도 어려움, 인력 재편성 필요, 사례관리 + 직접사업 수행
	중장기 계획	관내 아동 울커버 계획, 사례 관리의 전면 확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계 인프라 구축 예정	
	지역	삼례읍, 봉동읍, 고산면, 용진면 일부	
협력기관		희망복지지원단(주민생활) →주민 복지/ 주요 협력 내용(위기가동 + 위기가정/ 무기력청소년/ 성교육)	

과제도출



드림스타트 중심 교육 체제 구축
지원대상 확대, 인력보완, 교육문제 보완

3.3 교육통합지원센터 주도형

완주군의 방과후돌봄을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교육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제3기구는 예산, 인력의 확보가 가능할 때 타진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교육통합 조례가 만들어졌고, 예산도 약 2억정도 확보되어 있다.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방과후 돌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습관련 영역을 방과후 컨트롤타워를 축으로 교육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과후 교육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센터가 돌봄 부분을 연대하여 지원할 때 역할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가능 크다.

[표10]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제3기구 주도형(교육통합지원센터)

전제조건 : [학교(1) + 학부모(2) + 지역주민(3)] ↔ 연동 가능 지방자치단체지원 + 제3기구 구축 + 교육정책주도가능			
제3기구(교육통합지원센터)			
외부 환경 요인	중앙	장점	범정부 차원 돌봄 기구(교과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요청 범정부 지방자치단체 역할 주도 요청(8개 모형중 지방자치단체 주도 형 존재)
		단점	운영예산과 인력 감당 안되 논의 과정에서 실행체제 빠짐
	완주군	장점	지방자치단체 교육 개입 논쟁 가열(지방자치단체 주도 교육개입 절실) 중앙→ 실행기구부재 → 기회요인 활용 → 지방자치단체역할 극대화 가능 지방자치단체 교육개입 방과후 관련이 타당
		단점	실행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 전담 인력 조직 선행
	도교육청	장점	돌봄 관련 전수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전달 예정 방과후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어려움 지속적으로 전달 교육청 상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협력의사 표시
		단점	학교 복지 역할 타당하지 않다고 봄 중앙정부의 교과부 주도하에 학교에 돌봄 기능 강화 중앙정부와 돌봄개념과 교육복지 개념 차이 존재
주체	교육 통합 지원 센터	장점	현장 노하우 활용 방법 다양/ 총괄 구도 가능/ FGI 조사보고서 결 과물 활용 통합프로그램 개발 가능 조례완료 및 예산 일부 수립
		단점	제3기구 Manpower pool 구성 필요/ 추가 예산 확보
협력기관		희망복지지원단(주민생활) →주민 돌봄/ 드림스타트(주민생활)→ 아동 돌봄 주요협력내용 : 위기(아동+가정) 주민 지방정부 솔루션팀 안전망 구축	

과제도출



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결합 ⇒ 보완점 발생
⇒ 제3기구 조직으로 해결 가능

4. 교육적 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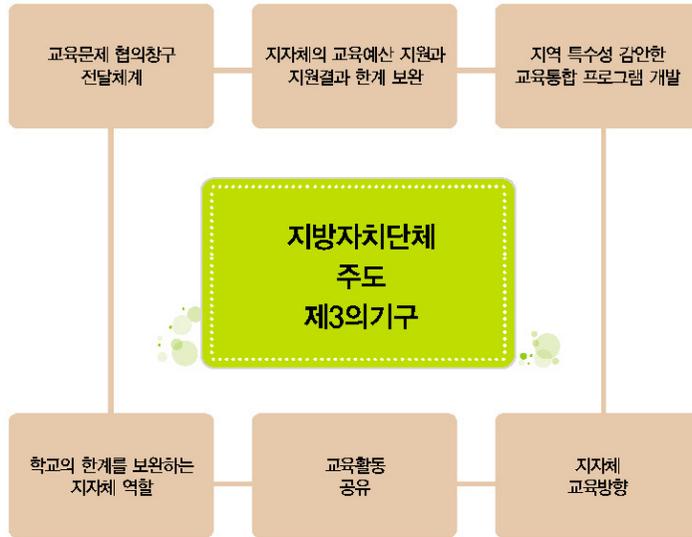
완주군이 교육지원에 대한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방향을 정규교과 과정 이외의 방과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와 범정부 차원의 방과후 돌봄 통합기구 추진이 시기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환경요인에 따라 완주군내 실행체제들을 탐색했으나, FGI조사 보고서에 나온 현안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체제는 찾기 어렵다. 결국 [표11]의 ‘학교(교육청)의 방과후 문제 해결’ 과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제3의기구의 해결 가능한 과제는 [표11]의 과정을 거쳐 [도식4]의 현안해결과 같다.

[표1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공헌 프로세스



결국, 범정부의 방과후 돌봄 통합기구 → 돌봄 영역(드림스타트센터+ 희망복지 지원단) 해결 → 지방자치단체 교육적 공헌(방과후 문제-방과후프로그램 및 학습)은 제3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도식4]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기구의 해결 가능한 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제 3기구를 통해 해결할 과제는 방과후 활동 영역에서 교육전달체계 구축, 교육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원 예산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전환 교육 및 홍보, 다양한 교육활동 공유 지원, 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한 통합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도식5]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기구의 한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제3의기구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도식5]로 서비스공급체 실무진 피로해소책, 아동·청소년 무기력증, 위기(아동+가족)아동 돌봄, 아동·청소년 성문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등이다.

[도식6]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기구의 한계 보완



FGI조사 보고서에 대두되었던 방과후 돌봄의 관점에서 드림스타트와 희망복지지원단이 해결할 선결 과제는 위기아동·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 아동·청소년 무기력증, 아동·청소년 성에 대한 문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공급업체 관계자 치유책(교사, 휴먼서비스 실무자, 공무원) 등이다.

4.1 유형별·체제별·프로그램별 공헌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은 작은 학교형이 갖는 특성 즉 지역사회(지역 토호)의 영향력이 막대한 점을 감안하고 운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지역아동센터가 없어 학교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내 내부 저항과 요구되는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학부모, 학교 지원에 중점을 뒀야 한다.

도농복합형은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개별화 정도가 심각해서 구심점이 없다. 상대적으로 학교의 영향력이 커서 독자운영이 가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학교를 상대로 비슷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봉동은 학부모가 끌려가는 형상이 돋보였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결합 정도가 봉동과 봉서를 중심으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가 커서 봉서와 봉동의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제3의기구가 구축된다면 도농복합형에 집중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농촌형은 다양한 민간주도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주민이 교육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민은 참여가 저조하다. 작은학교형과 비슷하게 지역사회 영향력이 크나 독보적인 역할이라기보다 학교와 학부모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려운 구도에 있다. 민간주도의 교육활동이 갖는 한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형으로 민간주도 활동의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활동 사이 연계 조정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표12]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학교 역할

유형	작은학교형(지역사회)		도농복합형(학교)		농촌형(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장점	최적의 교육환경 전학교적 접근 마을이 학교(거버넌스)	장점	산업단지 활용/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역사문화예술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원 - 변화 가능성 높음	장점	다양한 민간주도 교육활동 혁신학교 벨트지역 학교주도의 성공사례
	단점	학교 독자 운영 곤란 지역호호의 영향 과대 이주민 운신의 폭 좁음	단점	도농 교육환경 혼재 학부모 생활격차 큼 사고의 차이 큼/학교 독자 운영 가능	단점	거주자(원주민.이주민.생주민) 이주민 학부모에 대한 반감 학교 주도 성공사례-지역갈등
	과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교육컨설팅	과제	학부모 역량강화 동아리 활성화 제3조직의 집중지역	과제	민간주도 교육활성화 및 동아리 양성
학부모	장점	이주민이 주도 원주민과 관계 좋음	장점	학부모 동아리 활성화	장점	이주민 주도 교육활동
	단점	원주민이 적음	단점	무료 교육수혜 위주 이전 시설 학원 활성화 생활의 빈부 격차 커	단점	원주민 활동 미비
	과제	귀농인 지역이해 유도	과제	원주민 활성화 유도	과제	원주민 활동 활성화 유도
학교	장점	지역사회에 밀착 결합력 높음	장점	독자운영 가능	장점	지역사회 밀착 결합력 다소 높음
	단점	지역아동센터 역할 미비	단점	지역사회 분리 밀집도 약함	단점	개별화 된 활동
	과제	소통공간 역할 학교 유도	과제	지역과 연결된 학교 유도	과제	원주민 활동 유도

실행체제별 장·단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의 폭이 보다 명확해졌다. 다만 실행체제의 3개 조합을 통해 제시하였으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네트워크, 보편적 교육 접근) 등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다.

[표13] 실행체제별대안

체제 대안	제3기구 주도 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장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적 공헌에 충실할 수 있음 범정부 중앙 부처 교육부 주도 방과후 돌봄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단점	중간지원조직의 인력, 예산 확보
	희망복지지원단 주도 제3기구 + 드림스타트	장점	합리적인 예산 사용 및 업무 효율화 전주민 대상의 복지 지원
		단점	예산부족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입장 부족 인력 보충
	드림스타트 주도 제3기구 + 희망복지지원단	장점	예산의 확보 및 추가 예산확보 가능성 높음 범정부 차원의 분위기 조성 및 지원
		단점	지원 대상의 한계(12세이하) 돌봄에 편중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입장 부족 인력 보충

[표14] 유형별 프로그램 대안

프로그램 대안	마을 생활 복원 체험프로그램 마을 강사양성	청소년 동아리 직접지원 프로그램 역사와 문화 생활세계 접목한 통합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사회적 공헌유도-부모교육	마을 문화복원 체험 프로그램 마을 강사양성
사례	전남 담양 무정초 지방자치단체 촉발형	충남 아산 거산초등학교 지역사회 교육적 공헌	진안 제일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적 공헌